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아이유

Weekly
공감
2012.03.14 NO. 150
gonggam.korea.kr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3.26~27

기획특집
마이스터고 시대 활짝 기술 꿈나무들이 영근다 P33~48

기술한국 미래 열 마이스터고

이병욱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에 발간한 보고서(Learning for Jobs)를 살펴보면,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직업교육을 통하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에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극복, 청년실업 방지와 고용불안 해소, 질 높은 우수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진출과정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진로 모형과 직업 경로를 설계·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이스터고는 2010년 3월에 21개교가 개교되었으며 2013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마이스터고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도 커지고 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미래의 한국 기술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기능·기술 인재들이다. 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적성과 소질,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 마이스터에 요구되는 특유의 과제 집착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분야의 명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인정신과 자기 전공에 대한 몰입도 요구된다.

학교는 체제 개선 및 끊임없는 교원 직무능력 향상, 질 관리 및 질 보증 체제 구축, 그리고 자정 능력을 통하여 양질의 기능·기술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출된 산업 역군 양성 모델과 성과를 다른 특성화 고교로 확산·보급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 기업과 해당 산업 업종별 협회 등은 마이스터고를 통하여 획득된 기능·기술 영재가 입직 후 해당 분야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성된 인재를 전사적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미래의 한국 기술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한 분야의 명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본인의 노력과 장인정신이 요구된다. 그 바탕 위에 학교와 기업의 유기적 교육과정 연계와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로 경로 개발 및 보증, 자격제도 개선, 참여 파트너들의 역할을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 운영의 핵심은 학생들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졸업 후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졸업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스터고가 지향하는 도달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들이 한국형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국가와 기업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 국가 선진화에 마이스터고가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Contents

150호
2012.03.14 통권 251호

표지 이야기 |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는 없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 이웃들 말입니다. 사람 향기 물씬 나는 세상,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위클리공감〉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창간 150호를 맞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클리공감〉을 다녀가셨습니다. 도전과 감동, 나눔과 공생의 삶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기획특집

간판 아닌 실력사회 마이스터고가 연다

마이스터고가 각광받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에 강하다는 게 매력이다. 현재 재학생들의 81퍼센트가 이미 취업을 결정한 상태다. 정부의 목표는 졸업생 전원 취업이다. 정부 지원도 풍성하다. 학비와 기숙사비가 모두 무료다.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7개교가 추가로 개교해 모두 2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마이스터고가 그 문을 열고 있다.

52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3.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29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종군위안부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149호 '종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기사를 읽고 3·1운동 때의 민족정신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모른 척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 일본이 이를 모른 체한다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먼 나라'라는 생각은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를 하길 바랍니다.

허태준 (21·대학생·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게 돼 반가워

149호 '다양한 체험 통해 창의적 인재로 키우자'를 읽고 이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가 생겨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실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사물을 보고 창의적이고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 토요돌봄교실이나 학교 개방으로 토요일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도 충분히 갖추면 좋겠네요.

허작량 (59·자영업·부산시 북구 화명 3동)

신체장애 극복한 김인탁씨 이야기 큰 감동

149호 '아름다운 도전, 김인탁씨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특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라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더군요. 자신이 가진 신체적 결함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만약 꿈을 잃고 헤매는 이가 있다면 김인탁씨를 보고 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인탁씨를 보니 학창시절의 꿈이 생각나더군요. 앞으로 체육선생님 김인탁씨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상암 (53·목수·전남 신안군 장산면 대리)

우리나라 전자정부 2회 연속 세계 1위 선정 뿌듯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된 소식 잘 봤습니다. 국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 이런 결과물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향후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정부의 표준이자 롤모델로 계속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유재범 (37·회사원·서울 관악구 행운동)

독자 인터뷰

"공감이란 제호 끌려… 모든 세대에 희망 주는 기사 기대"

지강미 (62·커피숍 대표·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평소 구독하는 〈위클리 공감〉을 커피숍 한 켠에 두었더니 손님들이 가져다 읽으시고 '판매하는 주간지인 줄 알았다'고 해요. '공감'이란 제목도 참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지강미씨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를 오가는 손님들은 다양하지만, 손님들은 149호 기획특집 '아빠! 우리 여행 가요, 토요일은 패밀리데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정책기사들을 눈여겨본다고 했다.

149호에선 어떤 기사가 마음에 들었나요.

"탈북자 북송반대 청원운동을 하는 '세이브마이프렌드'의 김지유 리더의 기사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에 참가한 한 중국인이 자신의 조국을 향해 '내 딸이 중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으로 중학교 체육교사가 된 김인탁씨의 사진을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지체장애 3급)를 가진 그가 고려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일반학교 체육교사가 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노라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죠.

또 하나, 2040세대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고 큰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글·오동룡 기자

공감퍼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알 림

건강정보콘텐츠 개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강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고객의사를 반영한 서비스를 위해 공모전을 연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아이디어 공모와 이용후기 공모로 나뉜다. 기타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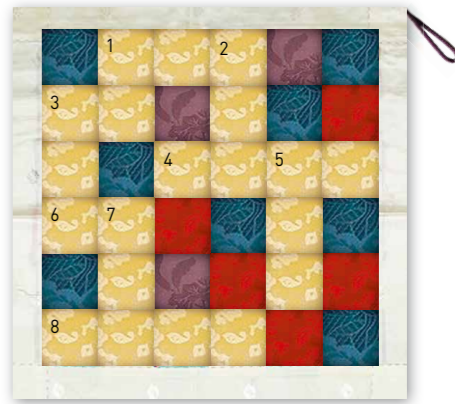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기간 | 3월 31일까지
응모분야 | ①아이디어 공모 : 심사평가원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건강정보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콘텐츠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등 ②이용후기 공모 : 심사평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 등
응모방법 | heeya9999@hiramail.net으로 이메일 접수
시상내역 | 아이디어 공모 대상 1명 50만원, 이용후기 공모 금상 1명 20만원 등 17편, 총 상금 1백80만원
문의 | www.hira.or.kr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02-705-9807

성매매방지 영화감독이 될 기회를 잡으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매매방지 영상제작 기획안을 공모한다. 응모자 중 4명(팀)을 선정해 영상제작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완성작품은 제4회 STOP! 성매매 영상제, 대학 및 지역 순회 상영회, 홍보캠페인 등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이전 대회 수상작들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기타 세부사항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자격 | 대한민국 전 국민(개인 및 팀)
응모일정 | 서류접수 4월 6일까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면접일정 개별 통지)
응모주제 | 우리 사회에 성매매 방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응모부문 | 성매매 방지 영상제작 기획안(동영상 20분 내외, 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홍보영상 등 장르 자유)
제출서류 | 신청서, 영상제작계획서, 시놉시스 등 'STOP! 성매매 영상제작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 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 1편 2백만원, 관객상 1편 1백만원 및 특전
접수방법 | webmaster@stop.or.kr로 이메일 접수
문의 | 공모전 홈페이지 www.stop.or.kr/competition2012 총괄기획팀 ☎02-735-5183

바로잡습니다

149호 57쪽 3월의 국도여행에 소개된 향일암 관람료 '대인 1만2천원'은 '대인 2천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2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학령이 안된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시설.
3. 정면으로 맞서 싸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등에 맞섬. "신기록에 OO하다."
4. 독일어로 주인, 스승, 명인(기술자) 등을 뜻하는 말. 이 명칭을 붙인 고등학교가 요즘 전성시대를 맞고 있죠.
6. 한 나라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8. 소망, 바람 등을 적은 종이를 나무에 매달아놓은 것.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OOOO 이벤트' 행사가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열렸다."

세 로

1. 석유가 나는 곳. "정부는 UAE(아랍에미리트)와 UAE의 3개 미개발 OO 개발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 마침내 우리나라도 OO을 갖게 됐다."
2. "OOO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3. 이곳에 가면 온갖 종류의 책이 많죠. 2012년은 '독서의 해' 입니다.
5.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힘으로. "OOO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맙시다."
7. 충남 연기군 일대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 행정 기능이 상당 부분 옮겨가게 되죠.

〈Weekly 공감〉 148호(2월 2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청산도 5 지상 7 비비리 8 계약 9 한류
세로 1 원산지 2 온도 4 산허리 6 상비약 8 계류

〈Weekly 공감〉 148호 '공감 퍼즐' 당첨자
문현식 · 전북 군산시 사정동
성우영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유상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정새봄 · 충남 논산시 대교동
최현아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하늘에서 본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항 건설 현장. 해안가에 위치한 검은 빛깔의 '구럼비' 바위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결과 여타 제주 해안지형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났다.

"시뮬레이션 재실시해도 같은 결과 나올 것"

실험참여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문제없어"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본격 재개됐다.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현장에는 여전히 반대측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5만톤급 이상 크루즈선 2척의 제주 민·군복합항 동시 입출항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2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로부터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해 들어보았다.

"항만에서의 선박 운항이란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주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현재 설계대로라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라면 '주차하고, 문 열고 하차하는 데 걸리적거림이 없는' 상태지요."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2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인 한국해양대 이윤석(42) 교수는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요구에 대해 "제주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은 어느 전문가가 재실시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를 지난 3월 8일 제주시에서 만났다. 제주 지역 관계자들에게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제주를 방문한 길이었다.

이 교수가 이끄는 해양대 시뮬레이션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국방부 의뢰로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아왔다.

제주도의 요청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력 변수' 입니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의 기술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2차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어 기술검증위의 검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 민간TF팀이 1차 시뮬레이션에서 입력된 선회장 길이, 풍속, 횡풍압 면적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 쟁점화해 왔습니다. 환경변수와 함께 선박 모델도 중요한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이란 점도 명시돼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검증위가 건의한 '풍속(초당 14미터), 횡풍압 면적(1만3천2백23평방미터), 항로법선 교각(航路法線 交角) 30도 적용과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예인선 배치'가 모두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시뮬레이션에서는 검증 항목마다 가장 큰 값을 입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좀더 어려운 여건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입출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것이죠. 풍속은 초속 10미터, 12미터, 14미터를 시행해 봤고, 풍향도 북풍·북동풍·남서풍을 모두 적용해 보았습니다. 선박모델인 퀸메리2호의 제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를 구해 적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횡풍압도 가장 많이 받는 경우까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동안 선회장 길이가 1.5L(선박 길이의 1.5배)이냐 2L이냐가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2차 시뮬레이션 결과 1.3L까지 선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퀸메리2호를 비롯해 15만톤급 이상 규모의 크루즈선이 7대 운항되고 있는데, 이들의 조정 성능은 일반 화물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납니다. 이들 초대형 크루즈선박은 선수·선미에 추진기를 장착하고 있어 자력으로 횡이동이 가능하고 선회도 용이합니다. 특히 1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이동하는 해양탐사선 등에 적용하는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DPS)'과 유사한 조정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비교해 일반 화물선이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이라면, 15만톤급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은 '사륜구동'인 셈이죠."

선박운항 시뮬레이션에는 왜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나요?

"선박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기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3차원 영상이 제공되는 시각 장치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모델 선박과 동일한 항해장비과 환경을 갖춘 구조물(MOCK UP)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에만 두 달가량 걸리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최소한 2백10도 이상의 시야가 확보된 넓은 공간에서 항해사가 가상환경 속에서 선박을 운항해 입출항을 합니다. 실제 선박 운항과 거의 흡사합니다."

선박 운항의 안전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정을 내리는지.

"이번 2차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상 교통안전, 선박 운항과 관련된 최고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12명)을 구성해 함께 연구결과를 판독했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은 4곳의 국내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기관의 '책임자급 진단사'들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책임자급 진단사'란 국토해양부가 자격 기준을 정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가들로, 국내에 저를 포함해 15명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참여해도, 혹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아직도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공사 반대가 거센데….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항을 반대하는 분들,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무산돼 아쉽습니다. 2차 시뮬레이션에 제주도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환경 요소와 대상 선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실습선 선장으로서 제주 민·군복합항에 입출항하게 될 크루즈선의 안전 운항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도출한 결과에 대해 관계자와 제주도민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G

글·박경아 기자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에 흔한 용암 바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부지 안에 있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논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반대론자들은 해안을 따라 1.2킬로미터 길이로 형성된 구럼비 바위에 대해 'D.K.K.K.(Don't Kill Kangjung Kurumbi)' 운동을 인터넷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구럼비란 명칭은 이 일대에 구럼비나무(표준어 까마귀쪽나무)를 많이 심었던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고 용천수가 솟아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0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문화재위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 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결과 구럼비 바위는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되어 있고, '튜물러스(tumulus·압력돔 : 용암이 부풀었다 식어서 형성된 구조)'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여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해안 지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도 구럼비 바위 해안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 성산일출봉)도 직접 관련이 없다.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싸고 반대론자들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 수시로 대상을 달리하며 반대 구실로 삼아왔다.

'핵테러 없는 세상' 소망나무에 열매 열리다

인천국제공항서 27일까지…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촉구

3월 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2주일여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위시트리 이벤트'가 열렸다. 3월 6일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우 기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인 박정현과 왕석현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위시트리 이벤트' 개막 행사에서 소망 메시지를 달고 있다.

'위시트리(Wish tree·소망나무)'에 주렁주렁 소망이 열렸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기원하는 많은 이들의 소망이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 설치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위시트리에 걸렸다. 한글, 영어, 독일어, 중국어 혹은 국적을 알아볼 수 없는 언어까지, 여러 언어로 핵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소망했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한 소망메시지 달기'란 부제를 붙인 위시트리 이벤트는 3월 6일 개막 행사를 갖고 2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 중이다.

개막 행사에는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인 가수 박정현, 아역배우 왕석현이 참석했으며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세르지오 메르쿠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또한 외교통상부 블로그기자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기자단,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등이 일반 국민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전 세계 70억명이 진심으로 바라면 이뤄진다"

안호영 차관은 개막 행사 기념사에서 먼저 "핵테러의 비극은 상상할 수 없다.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핵테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안 차관은 이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진심으로 바라면 이뤄진다. 핵안보정상회의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염원하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행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위시트리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아역배우 왕석현은 "핵안보정상회의란 핵이 좋은 곳에만 쓰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국가대표들의 모임"이라고 어린이다운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왕석현은 이어 "앞으로 핵이 폭발하는 일이 없고,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며 "홍보대사가 되었으니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의젓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보대사 가수 박정현은 세심한 감성이 돋보이는 핵안보정상회의 주제가인 '피스송(Peace Song·부제 : 그곳으로)'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이자 아역배우인 진지희양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피스송' 뮤직비디오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 **위시트리 메시지들**
>
> "핵테러는 전쟁과 같고 사람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김현태
>
> "미래에 나의 손자 손녀가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예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오안옥
>
>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핵 없는 안전한 지구 안에서 살고 싶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유미♡경열
>
> "Save our beautiful world without nuclear.(핵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요.)" -Somkiat Janpisutkul
>
> "우리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하여 핵테러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전소영

다양한 감성콘텐츠로 국민의 관심 높이기로

201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58개국 주요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비롯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 관련 부처는 '핵'이라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쉽게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감성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적 친근감과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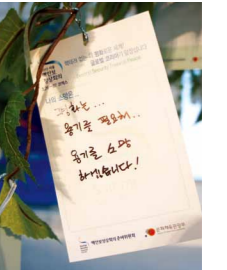
한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다음 날인 3월 28일 58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정상회의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사적 현장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번 체험전은 정상회의장, 정상라운지, 정상오만찬장, 정상양자회담장 등 참가정상의 모든 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국민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그룹포토존' 등 일반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글·박경아 기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 가수 박정현

"평화는 용기가 필요해… 용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인 가수 박정현의 위시트리 메시지다. 박정현은 위시트리 이벤트에 참석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적어 위시트리에 걸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주제가인 '피스송'을 부른 박정현은 '피스송'의 영어 가사를 직접 작사했다.

홍보대사를 맡은 소감은 어떠신가요?

처음 홍보대사를 제의받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외국에서 자라 글로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인 듯해요. 국제 행사인 핵안보정상회의 이미지와도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홍보대사를 요청하신 게 아닐까요.

평소 핵안보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지.

솔직히 홍보대사를 맡기 전에는 핵안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핵안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세계적으로 핵안보에 대해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를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도 이렇게 함께 배우고, 알려드리기 위한 것 같아요.

피스송의 영어 가사 작사를 맡게 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피스송'은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 가사가 필요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홍보대사로서 기여할 방법을 찾다 보니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자신 있는 재능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를 쓰게 됐어요.

상업 광고의 모델로 출연할 때와 홍보대사를 맡을 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쪽 모두 제가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느껴요. 평소에도 제가 어떠한 상업광고 모델이란 것, 혹은 홍보대사란 점을 잊지 않고 지냅니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는 그 무게에 있어서 상업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죠. 사회적 중요성이 확연히 다르니까요.

홍보대사를 맡은 뒤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홍보대사를 맡는다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나는 가수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곧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홍보대사로서 다짐이 있다면.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어떤 주제 때문에 서울에 모이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홍보대사로서 관심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피스송 뮤직비디오 무료다운 받기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 www.seoulnss.go.kr / 올레뮤직 www.olleh.com

"핵안보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배웠어요"

국내외 1백20여 명 참여… 사흘간 열띤 토론 후 9개항 코뮈니케 발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기념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MNSS)'가 개최됐다. 이번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학·대학원생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참석해 실제 회의 못지않은 뜨거운 토론을 벌여 핵안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경험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첫째, 핵 수사 정보 등 핵테러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폭넓은 교환을 위해 모든 국가에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사법재판소(ICC),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협력 심화를 요청한다…."

지난 3월 4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막을 내린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코뮈니케(성명서)'의 일부다. 코뮈니케에는 이밖에도 핵 대체 에너지의 개발, 국제적인 핵안보 강화에 있어서 IAEA의 역할 확대 등 모두 9가지 항목의 결의사항이 채택됐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미리 체험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외국어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아시아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해 사흘간 계속됐다.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해 눈길

국내외 대학·대학원생인 1백2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단, 참가자, 스태프, 기자단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를 대표한 50여 명은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등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놓고 사흘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러한 토론 끝에 모의 정상회의 마지막 날 각 조항에 대해 일일이 표결을 부쳐 9개항이 담긴 코뮈니케를 작성했다.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준기(23·일본 와세다대)씨는 "평소 군축이나 안보 쪽에 관심이 많아 참석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모의 유엔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경험이 있다는 그는 "사흘간 회의가 실제처럼 진행됐기 때문에 기나긴 토론과 발표, 협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코뮈니케가 나오는 게 다행스러울 정도"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해 일부는 직접 자국 대표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대표 로만 베르니두브(23·서강대)씨, 이탈리아 대표 클라우디아 플란테라(서강대), 중국 대표 리 페이유(24·한국교통대), 인도 대표 꾸마르 붓샨(28·국민대)씨가 그들이다.

인도 유학생은 붓샨씨 등 모두 3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이번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 가장 많은 '대표'를 파견한 나라가 됐다. 이 세 명은 모두 뉴델리의 네루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다 "대학원은 한국으로 가자"고 의기투합해 유학 온 사이.

"국제 이슈에 대한 안목 키우는 좋은 경험"

가장 선배인 붓샨씨는 "이번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토론도 많이 하고 핵문제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둘째'인 산토쉬 꾸마르 란전(28·한국학중앙연구원)씨는 체코 대표를 맡았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회의하는 방식이 무척 재미있었다"고 했다.

셋 중 '막내'인 선저이 꾸마르(24·강원대)씨는 "브라질 대표를 맡아 그 나라의 입장에서 핵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색적이었다"며 "다들 공부를 많이 해왔고, 이번 기회에 핵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물론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했다.

러시아인 베르니두브씨는 "처음에는 큰 회의를 통해 발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했다"며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해 핵안전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밝혔다.

중국인 리씨는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되어 발표를 많이 못했다"며 "평소 핵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핵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박경아 기자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뭉쳤다! 3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대학·대학원생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바실 마르마초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핵무기 감축에 앞장"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의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을 함유한 분진과 연기가 분출됐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다. 오는 3월 26~27일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중 우크라이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10월 부임한 바실 마르마초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핵안전·핵안보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체르노빌 사고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핵안전 및 주민보호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단이 되어 2010년 4월 열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차기 회의 전까지 원자력 연구시설의 고농축우라늄(HEU) 비축분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멕시코와 칠레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폐기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선례는 모든 국가를 위한,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핵무기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핵무기의 추가적 축소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모든 국가가 핵안전·핵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 체계를 수립하고, 핵물질 및 핵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르마초프 대사는 "한국 등 국제 공조국들과 우크라이나가 시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체르노빌 원전을 생태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자로 4호를 덮은 석관을 안전하게 새로 설치하고, 안전한 폐연료 보관수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조인식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핵무기 축소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체르노빌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모금 노력을 기울여 체르노빌 원전 근처에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를 위한 보상금 및 석관 신규 설치 비용으로 약 7억천5백만달러를 모금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1만2천명 이상의 해체작업자가 사망했다"고 밝힌 마르마초프 대사는 "약 5백만명에 달하는 피폭자들은 현재 갑상선암, 백혈병, 심장병, 방사선병 등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마초프 대사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5년간 우크라이나의 전문가들은 원전 사고 영향으로부터 주민 보호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방대한 정보를 확보했다. 한·우크라이나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 고위급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공감 코리아〉〈코리아 타임즈〉

국민의 삶에 스며든 정책의 온기를 담다

국내외 도전과 나눔·공생과 공감의 현장에 한 걸음 가까이

〈위클리 공감〉이 창간 150호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정책 소개'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전과 나눔, 공생과 공감의 현장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위클리 공감〉은 정책이 실현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현장을 더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101호는 천안함 피격 1주기를 특집으로 게재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분들과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을 맡았던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말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윤 교수는 음모론을 제기한 쪽에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천안함 피격 사건 1주년이 다가오지만 양심선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의 말대로 양심선언은 2주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도전의 현장〉 경계를 뛰어넘는 감동 전해준 젊은이들

도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도전은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나이도 학력도 성별도 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회의 미래는 분명 밝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합니다. 〈위클리 공감〉은 특별히 젊은이들의 도전에 주목해 'G20세대가 G20세대에게'라는 코너를 연재했습니다. 도전의 형식은 그야말로 다채로웠습니다.

인도 뭄바이대에서 유학 중인 박시용씨는 현지인들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꿈이라는 청년입니다. (105호)

박지용씨는 자전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의 여행기를 기록한 UCC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그의 UCC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유럽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박씨는 '프리허그'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삶에 응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자전거 세계여행입니다. (107호)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인천혜광학교의 이야기는 도전과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악기가 보이지 않아 연주는 서툴렀지만 불가능에 도전하는 마음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보통사람보다 훨씬 발달한 청각이 음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다"는 명선목 교장의 뜻이 오래오래 울려퍼지길 기대합니다. (126호)

미스월드코리아에서 5위에 입상한 김혜원씨도 도전의 삶을 사는 젊은이입니다. 청각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봉사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수영, 암벽등반, 스노보드 등에 능한 스포츠우먼이기도 합니다. 김씨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싶다"는 김씨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42호)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134호)

故 이태석 신부 (120호)

청각장애 미스월드코리아 김혜원 (142호)

사회적기업 '동천' 성선경 대표 (124호)

연기자 이시영씨의 도전은 뜻밖의 감동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권투에 도전해 챔피언에 오른 이씨의 도전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자가 되기 위해 수십 번의 오디션을 치른 '도전정신'이 권투에서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103호)

〈공생의 현장〉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깬 훈훈한 사람들

차별과 편견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 공생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 말입니다.

청각장애인 곽지정씨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해 채용된 것입니다. 그의 일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행정 서비스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한 그는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106호)

다문화여성의 한국 정착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황경화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대화를 나누며 한국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지대한 황씨는 이미 영락없는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107호)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 뒤에는 다문화여성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14명의 다문화여성으로 구성된 'F1 호텔운영요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모국어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셈입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는 다문화여성들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응원합니다. (131호)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공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취업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쿠키 제조업체 '위캔'과 모자업체 '동천',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은 일자리를 통한 공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24호)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미술프리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던 차에 공공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마을과 거리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면서 노인 등 취업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124호)

학력 차별을 없앤 기업인 윌테크놀로지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학력보다 실력을 우선으

복싱 도전 연기자 이시영 (103호)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프리즘' 전유라(왼쪽) 국장과 유다희 대표 (124호)

'책다모아' 사업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 (106호)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 식구들 (135호)

학력차별 없는 윌테크놀로지 김용균 대표 (132호)

로 채용하고 승진과 대우 등에서도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절반이 고졸이지만 기업은 쑥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졸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차별 없이 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이 회사 김용균 대표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132호)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은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만든 이 '복덕방'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알선해줍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겁니다. (135호)

청년유니온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늘어나는 학비와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단기 일자리에 나섰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관행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134호)

야학봉사 공석성 주무관 (145호)

〈나눔의 현장〉

소외된 이웃을 따뜻이 안은 또 다른 이웃들

이웃을 돌보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습니다. 거창한 대의나 재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식사봉사 모임인 '죽우회' 회원들은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장기를 발휘해 이웃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102호)

나눔에 나선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는 도서기증운동입니다. 개인들이 소장한 자료를 기증받아 정보소외지역의 도서관에 재기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증받은 도서가 50만권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106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뛰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유승흠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의료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아픈 이웃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십시일반'을 부탁했습니다. (108호)

나눔의 온기는 해외로 번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해외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 각부처에서 추진하던 해외봉사단 사업을 WFK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해외봉사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120호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온몸으로 실천해 훈·포장을 수훈한 분들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남부수단에서 손수 병원과 학교를 지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 고 이태석 신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한푼 두푼 모은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황금자 할머니, 양손을 잃은 장애를 딛고 염전을 일궈 장애인과 노인을 돕고 있는 강경환 사장, 보따리 장사로 모은 15억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길분예 할머니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며 20년간 50억원을 기부한 배정철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배씨는 "나눔은 결국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기부는 보통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서울대병원에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또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도움을 받은 환자가 4백19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길 잃은 청소년들을 보듬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김현수 목사는 믿음직한 안내자입니다. 청소년 보호시설과 대안학교 등을 통해 3백여 명의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김 목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주위의 작은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나눔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그 자체로 나눔이라는 것을 새삼 되새겨봅니다. (137호)

'탈북자 대모' 조경숙 경위 (113호)

포상금 통 큰 기부 '행정안전부' (144호)

〈공감의 현장〉

정책의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공무원들

흔히 '탁상행정'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성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에 깊이 공명하는 정책과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이웃으로서 끈끈한 연대의식이 따뜻한 정책과 어우러지고 있는 현장 역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의 조경숙 경위는 탈북여성자들에게 '엄마'라 불립니다. 엄마 못잖게 탈북여성들을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탈북여성을 위해 몇 번이나 '혼주'로 참석했을 정도입니다. 조 경위의 업무는 탈북여성의 신변보호입니다. 한국 정착을 위해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최선의 신변보호라고 조 경위는 믿습니다. (113호)

143호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옥 사무관은 강원도 문막 지역 주민의 수해예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넉 달 동안 서울과 문막을 오가며 관계부처를 설득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경애 사무관은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사업주를 직접 찾아가 채용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정삼 서기관은 파프리카 수출 공로자입니다. 수출 시스템을 개선해 파프리카 수출길을 텄습니다.

경기도의회 공석성 주무관은 3년 동안 야학에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위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이어서 학생들의 지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40~60대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보니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배운다"는 그의 소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45호)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의 '통 큰 기부'도 반가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포상금 2억5천만원 전액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소외계층 자녀 1백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평소 나눔에 적극적입니다. '행복드림봉사단', '한우리회', '직장협의회' 등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144호) G

글·변형주 기자

〈바로잡습니다〉 없도록!

〈위클리 공감〉 100호부터 150호까지 게재된 기사 중 현장 취재의 사소한 실수나 제작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바로잡습니다〉가 11건 발생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출장 등 빡빡한 제작 일정이지만 〈위클리 공감〉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민에게 생생한 정책 현장 소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서 1급 공무원 변신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축·수산물 안전 감시하는 '야전사령관'

지난해 6월 출범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축·수산물 원산지 통합단속 등 단기간에 기대 이상의 업무성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화의 주역인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우리 본부는 세계 일류 검역검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우 기자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지난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이후 기존 3개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불안·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기후변화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농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입출국자가 연간 4천3백만명에 이르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국민적 기대가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기존 3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해 6월 15일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박용호(57) 초대본부장은 같은 해 8월 18일에 취임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축·수산식품의 위생관리, 동물질병 방역 및 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국내 수산물 품질인증 및 원산지표시 관리, 수의과학·식물검역 연구개발, 동물용 의약품 관리 및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5부, 29개 과, 6개 지역검역검사소 및 30개 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총 1천3백3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2천명에 이른다.

1백년 역사의 3개 기관 성공적 조직통합

지난 3월 5일 경기도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만난 박용호 본부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기관을 합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나갈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검역검사본부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천후 전방 기지'입니다. 저는 그 전방 기지의 검역·검사·방역 관련 총괄 집행 업무를 맡고 있는 '야전사령관'인 셈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현재 직원간의 화학적 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전의 (구)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국립식물검역원, (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각 분야의 전문 검역검사 기관이었다.

따라서 각 기관의 문화와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기관은 통합되어 거대해졌는데 그 능력은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분열 조짐마저 있었다.

그래서 초대본부장으로서 제1의 역할은 진정한 조직의 통합이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적임자다. 3개 기관 중 하나에 1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15년간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재직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기 때문이다.

조선DB

지난해 8월말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의 구제역 매몰지를 점검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지난해 1급 고위공무원으로 변신을 감행했다. "학문탐구의 가장 큰 목적은 세상과 학식을 공유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이력이 농·축·수산물의 검역검사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선진 검역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응모해 발탁되었다.

세계표준실험실 인증 연이은 획득 이뤄

박 본부장은 취임 시부터 '하모니 & 시너지'를 키워드로 하여 3개 기관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지난 가을의 '한마음 전진대회'는 이런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직원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탁구대회 우승, 야구대회 준우승 등 동아리활동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축·수산물 원산지 통합단속(특별사법경찰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워크숍·연찬회를 합동 개최해 유사분야 '우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동·식·수산물 CIQ(세관 이민검역구역) 합동근무, 불법휴대품 종합 탐지견 운영 확대, 정보시스템 통합 등 9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을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동·식물검역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서 금지병해충 발생 확인 시 수입제한 조치(12회)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열악하고 낙후된 도축 가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덴마크 등 선진 축산수출국을 벤치마킹해 농장부터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도축유통시스템 구조개선, 판매영업장 지도점검 및 감독과 식육 등 축산물 정밀검사 및 확대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진단과'와 '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방역조직인 가축질병방역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일선의 방역기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검역검사 능력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지난 1997년 병원성 대장균 O157:H7 사건, 2007년 미국산 쇠고기 다이옥신 검출 및 최근 들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2개(브루셀라병·닭뉴캣슬병) 인증받았고, 사슴의 만성소모성질병(CWD)과 광견병(사람의 공수병)에 대한 세계표준실험실 인증을 오는 5월 말에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규모·시스템으로 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그 자체로 한국의 검역·검사 능력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3개 분야의 진정한 하모니로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면 머지않아 세계 일류 검역검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G

글·박영철 기자

기름을 찾아서… ‘사막의 꿈’ 이루다

한국, UAE 유전 3곳 합작개발 계약 체결… 하루 4만3천배럴 생산 예상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에는 산유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오랜 갈망이 담겨 있다. 최근 중동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국민의 비원(悲願)을 이뤄줄 낭보가 날아들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UAE 3개 미개발 유전 스토리는 그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산유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오랜 꿈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컨소시엄(한국석유공사, GS에너지)과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가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이달 안에 각각 34퍼센트와 6퍼센트를 출자해 아부다비석유공사(60퍼센트)와 함께 합작법인을 세우고 유전개발을 시작한다. 계약기간은 30년으로 이르면 2014년부터 유전 3곳에서 하루에 최대 4만3천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우리 측 지분물량은 하루 1만7천배럴로, 그동안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 생산 물량만 놓고 볼 때 영국 다나(하루 4만8천배럴), 캐나다 하베스트(하루 3만8천배럴)에 이어 역대 3위 규모다. 한국컨소시엄은 향후 투자비용 50억달러 가운데 지분 비율만큼인 20억달러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UAE선 미국·영국·프랑스·일본 이어 다섯번째 진출

비상시엔 생산물량 1백퍼센트를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1만7천배럴로 계산했을 때 0.5퍼센트포인트 오르는 자주개발률은 비상시를 기준으로 하면 1.3퍼센트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이번 건으로 대한민국은 UAE가 33년 만에 유전을 개방한 첫 국가가 됐다. 1979년 일본 업체가 해상유전 개발에 참여한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UAE는 석유 매장량이 1천억배럴로 세계 6위의 매장국이고,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만이 진출해 있었다.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원개발 정책이 마침내 중동 UAE에서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컨소시엄과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유전 3곳 개발 본계약 체결식.

중동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4퍼센트, 매장량 상위 10개국 중 절반이 속해 있는 핵심 유전지역이지만 진출 자체가 매우 어렵다. 전후 빠른 경제 재건을 위해 해외기업에 유전을 개방한 이라크를 제외하면, 사우디, 쿠웨이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직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전개발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라크 유전 입찰 시에도 일정 규모의 자격을 갖춘 해외 석유회사만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UAE는 추가로 진출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셈이다. UAE는 고품질의 원유와 안정적인 투자 여건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UAE의 원유는 최고 품질인 고급 경질유로 API 기준 35도, 여타 중동지역은 30도다.

UAE의 경우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만 정상외교 등을 통해 구축된 양국간 신뢰관계에 기반해 자원개발역사가 35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문호를 개방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한 GS에너지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간기업에까지 기회가 확대된 것도 의미 있다.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왕세자 깊은 관심

이번 본계약을 통해 UAE 유전 추가 진출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아부다비의 실력자인 모하메드 왕세자(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가 이번 계약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당초 서명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왕세자궁에서 서명식 관계자들과 별도 접견자리를 마련하고 이번 본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1백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인시켜 줬다. 막후 협상을 주도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UAE 최고 통치자인 아부다비 국왕, 왕세자와 대한민국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 없이는 이번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본계약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원개발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권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했다. 광구확보 방식도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M&A(인수합병) 중심으로 전환해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했다. 그 결과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퍼센트를 기록했다.

한·UAE 긴밀한 관계도 한몫

이날 서명식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계약 체결로 해외자원개발 35년 역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개발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2009년 원전계약 체결 이후 양국간 성립된 ‘1백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기업으로 참여한 GS칼텍스의 허동수 회장은 “40년 석유·에너지사업에 종사한 이래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그동안 에너지 협력을 통해 한·UAE 양국이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분야를 전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UAE와는 지난 2009년 원전계약 이후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그리드, IT의료 등도 상호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UAE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UAE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약 6천3백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G

글·박영철 기자

조선DB

OECD가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사업을 종합적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했다. 사진은 여주와 이천을 잇는 한강의 이포보로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전국 16개 보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졌다.

OECD 국가의 물 스트레스 지수 (단위 : %, 기준연도 : 2009년) **자료** OECD

50
40
30
20
10
심각한 스트레스
중간단계 스트레스
낮은단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음
한국 벨기에 스페인 일본 미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칠레 핀란드 노르웨이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가용 수자원에서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수치가 클수록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살리기는 수자원관리 좋은 사례”

OECD, ‘환경전망 2050’ 공개…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7일 ‘OECD 환경전망 2050’ 물 챕터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4대강살리기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 접근 사례로 소개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높은 하상을 준설해 물이 잘 흐르게 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고, 보를 막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해 가뭄을 방제하는 등 1석5조의 효과를 가진 사업이다.

OECD는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을 작성해 왔다. 지난 3월 12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OECD는 물(water) 챕터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 진행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특히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대안(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 “4대강살리기사업이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76억달러를 4대강살리기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국은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 가장 심해”

4대강살리기사업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관여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물 부족 대비를 위해 13억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준설 및 보 건설로 2백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는 한편, 9억2천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홍수 대비 용량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사업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ppm을 목표로 수질을 개선하고, 2백23개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해 수(水)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변 친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완성 시점은 2012년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3백28억달러(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사업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OECD 환경 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사는 사람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2000년 16억명이던 것이 2050년이면 39억명으로 증가,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퍼센트 이상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가용(可用) 수자원에서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클수록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간 총 평균수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농지 등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가 많이 배출돼 수(水)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캐나다는 2005년 국가의 총 평균수량의 1.2퍼센트 정도만 취수한 데 반해 한국은 40퍼센트 이상을 취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 스트레스가 30퍼센트 안팎으로 평가된 벨기에와 스페인이 2위와 3위였고,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OECD는 향후 미래에는 물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물 사용의 효율화와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세우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4대강살리기사업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에 OECD는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웰빙 필수요소”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김상훈 과장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웰빙에 필수 요소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물 관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주요한 도전 요소”라며 “중대한 정책적 변화, 물 관리 절차와 기법에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2050년까지 물에 대한 경합이 심화되고,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김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이면서도 상하수도 요금은 OECD 비교 대상 2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서둘러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등 물값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4대강살리기사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모범 케이스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수입 화장품·청바지 관세철폐로 싸진다

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도 관세부담 줄어 가격하락 기대

한·미FTA가 발효되면 소비와 문화, 제도 등 다방면의 변화가 발생한다.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좀더 다양한 서비스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바라봄직하다.

우리 식탁에서 미국산 식품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과일이며 곡물, 낙농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들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수입과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 자몽에 부과하는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체리 생산국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체리의 80퍼센트가 미국산이다. 체리에 부과하는 24퍼센트의 관세는 한·미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자몽(30퍼센트)과 키위(45퍼센트)는 각각 5년, 15년에 걸쳐 사라진다. 관세율이 50퍼센트에 이르는 오렌지도 무관세 물량을 확보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포도는 계절에 따라 관세 철폐 시기가 다르다.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 사이에는 17년에 걸쳐 균등 철폐되고 10~4월까지는 발효 즉시 관세가 24퍼센트로 인하된 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한·미FTA는 수준이 높은 FTA다. 포괄적이며 예외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는 의미다. 낙농제품과 가공식품, 곡물 등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 철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산 자동차 12퍼센트 가격인하 여력

우리나라는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치즈를 수입한다. 미국산과 뉴질랜드산이 특히 많다. 두 나라의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치즈에 부과하던 36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치즈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시기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치즈는 10년, 체다치즈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버터에 부과하는 89퍼센트의 관세는 10년 후에 철폐된다.

감자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5백만달러를 수입하는 미국산 식용감자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3백4퍼센트에 달한다. 한·미FTA 발효 후에도 이 관세율이 유지되지만 3천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어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칩용 감자에 부과하는 3백4퍼센트의 관세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12~4월에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옥수수(3백28퍼센트)와 식용대두(4백87퍼센트)의 관세도 없어질 예정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도 사라진다.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18~20퍼센트의 관세가 붙는다. 이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닭다리 주요 수입국이다. 미국산 생삼겹살에 부과되는 22.5퍼센트의 관세는 매년 2.2퍼센트씩 낮아져 10년 후에 완전히 철폐된다. 수입 생삼겹살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은 45퍼센트다.

미국산 공산품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화장품(8퍼센트), 셔츠와 청바지 등 의류(13퍼센트)에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철폐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도 없어진다. 8퍼센트였던 관세가 발효 즉시 4퍼센트로 내려앉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우체국보험 감독 강화로 안전성 높아져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 철폐 외에도 또 다른 가격하락 요인이 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관세를 기반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관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두 사라질 경우 약 12퍼센트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우편, 법률, 회계 등 각종 서비스도 개방돼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다양한 첨단 금융상품을 접하게 된다.

우체국보험은 안전성이 강화된다.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미FTA 후에도 우체국보험의 보편적 보험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현재 취급하지 않는 상품에는 진입이 제한된다. 농협과 신협 등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있던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쇠고기 이력제도가 그것이다.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의 등급, 도축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안심장보기'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2014년부터는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확대·강화된다.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가 대상 품목이다. 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개용과 탕용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넓혔다.

고용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제통상, 통·번역, 협상, 물류, 유통, 문화, 금융, 법률 등 한·미FTA와 관련한 직업이 유망직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방이 가속화되면 전 산업에 걸쳐 마케팅과 브랜드, 연구개발 전문가, M&A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셈이다.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을 보면 한·미FTA 이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즈의 경우 36퍼센트의 관세가 10~1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안심장보기' 앱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구분	내용
소비생활	체리·자몽·오렌지·감자 등 농산물 관세 철폐 미국산 닭고기·돼지고기 관세 점진적 철폐 프룬 등 건강보조식품 가격 인하 자동차·와인·화장품·셔츠·청바지·가방 관세 철폐 인터넷 쇼핑으로 미국산 제품 구입 시 관세 철폐
서비스	미국의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가능 우체국·농협·신협·수협 등의 보험상품 안정성 강화
제도개선	쇠고기 이력시스템 등 안심장보기 확대 식당 음식 원산지표시 확대 자동차개별소비세·자동차세 세율 인하 미국 지사 파견 시 비자 유효기간 연장
문화생활	방송서비스 시장 일부 개방으로 방송채널 확대
교육·고용	국제통상·통번역·협상·물류 등 FTA 관련 직업 유망 장기적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을 채택해 실 제조 단계부터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야 관세 혜택

전국 세관 등 '한·미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 다양한 지원책 마련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한·미FTA가 딱 그렇다. 수출기업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정부는 기업이 한·미FTA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그만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한·미FTA는 기회가 된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자동적으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있다. '원산지증명서'가 그것이다. 수출품이라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수입품이라면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발급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발급해 통관당국에 제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의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포괄증명을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기록 5년간 보관해야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제품이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관당국은 허위 증명서 발급이나 특혜관세를 막기 위해 5년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형태는 서류를 비롯해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등 편리한 매체를 선택하면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섬유제품의 원산지는 원사기준(yarn-forward)을 따른다.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세철폐 외에 대미 수출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 미국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연간 8천만달러의 물품취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한·미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FTA닥터'는 관세청, 국제 원산지 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FTA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세관이나 관세청의 FTA포털에 신청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을 방문해 협정적용 대상 여부,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등을 컨설팅해 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간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국 15개 FTA활용지원센터서 다양한 서비스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FTA-PASS' 프로그램은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체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FTA 유관부처들이 운영하는 FTA포털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처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가 차별화돼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전국 15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FTA활용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의 등이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한·미FTA 활용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는 전국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한·미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벌이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기업 FTA 활용지원 제도

FTA닥터	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
FTA-PASS	국제원산지정보원 www.origin.or.kr FTA-PASS www.ftapass.or.kr
FTA 홈페이지 운영	기획재정부 www.ftahub.go.kr 외교통상부 www.fta.go.kr
무역종합 지원센터	www.okfta.or.kr FTA콜센터 ☎1566-5114

한·EU FTA로 성공한 기업 스토리

전사적 노력으로 복잡한 원산지증명 획득 가격경쟁력 높아지자 수출길도 활짝 열려

지난해 중순경 자동차용 선루프를 제조하는 K사는 EU지역 바이어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거래가격을 3퍼센트 인하하라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3퍼센트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끊겠다는 말이었다. 즉시 특별팀이 꾸려졌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EU FTA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한·EU FTA가 발효되면 선루프 같은 자동차 부품은 4.5퍼센트의 관세가 바로 철폐되어 0퍼센트가 되었다.

세부 실행방안이 검토되었다. 대부분 공정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은 틀림없었다. K사는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EU 바이어는 K사가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고, EU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다.

K사는 모든 것을 한·EU FTA에 걸었다. 직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3명을 선발하여 FTA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였다. 전 직원이 24명, 그마저 대부분이 생산직인 K사로선 전사적인 대응이었다. 직원들은 원산지관리를 위한 자체 학습을 시작하였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던차에 인천세관 FTA부서와 인연이 닿았다.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였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했다. CEO의 관심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사 직원 3명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K사는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K사의 협력업체였다. 혜택도 없는데, 원산지 확인에 책임만 지는 것이었다. 전담직원 3명의 활약이 시작되었다. 전담요원들은 FTA를 처음 접했을때의 경험을 살려 협력업체를 찾아가 설득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K사는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약속기일 하루 전날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다.

인증수출자를 받고 나서 EU로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우선 EU로 수출한 25만달러 상당의 계약은 더 이상의 가격인하 없이 종전 조건대로 진행되었다. 대신 EU 측 바이어는 1천2백만원 상당의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추가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다.

현재 K사의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다. 종업원 수도 28명으로 4명 늘었고 올해는 45명 정도로 증원할 예정이다. EU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다 보니 기술력도 몰라보게 좋아져서 중국은 더 이상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K사는 한·미FTA 발효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한·EU FTA로 인한 성공이 되풀이되길 기대한다. 이미 지난해 세계 3대 선루프 부품 제조업체인 미국의 인알파사로부터 거래 제의가 들어왔다. 인알파사의 주고객은 BMW, 벤츠, 볼보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를 망라하고 있다. K사는 거래단절이라는 위기를 한·EU FTA로 극복했고,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자동차 추가협상 '이익의 균형' 이상 없다

쟁점인 '자동차 세이프가드'도 현지생산 많아 우리 피해 주장은 과장

3월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한·미FTA 재재협상 또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협정 내용과 2010년 추가협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도입한 자동차에 관한 세이프가드도 일방적인 양보로 볼 수 없다. 2007년 협정문 서명 당시와 현재의 한·미FTA 내용을 Q&A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Q "미국에게 지나치게 양보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한·미FTA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있었던 한·미 양국 간의 FTA 관련 추가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2007년에 서명한 협정문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일부분에 제한돼 진행된 것으로 참여정부 때 서명한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재재협상 10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뺀 나머지 9가지는 참여정부 때 미국과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추가협상에 대한 오해는 이것 말고도 많다.

Q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협정 내용이 달라진 것은 사실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추가협상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양국의 자동차 교역구조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를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이익의 균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FTA 발효 후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조정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8퍼센트이던 자동차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발효 즉시 4퍼센트로 인하 후 5년째 완전 철폐'로 요구해 관철시켰다.

또한 당초 협정문에는 없던 세이프가드를 새로 도입한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양국에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일방적 양보로 볼 수 없다.

- 재재협상 요구 10가지 중 9가지 2007년 서명한 협정문과 거의 같아
- 車 분야 美 우려 일부 해소 대신 돼지고기·제약서 우리 요구 반영
- 합법적인 협정 마무리 시점서 폐기 주장은 국제신뢰 훼손 우려
- 전 세계 발효된 FTA 2백97건 중 일방적 요구로 폐기된 사례 전무

Q 양국 간 자동차 교역 구조가 이번 추가협상과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 해 평균 51만대에 이른다. 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1만3천대 정도다. 또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퍼센트로 미국(2.5퍼센트)의 3배 이상이다. 이러한 자동차 교역 불균형은 미국 측이 FTA 협상 내내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이다. 2007년 이후 미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자동차 협상내용에 대한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2010년 추가협상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비준 절차에 물꼬를 트고, 대신 돼지고기, 제약 산업 등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협상이었다.

Q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관세 철폐가 조정되면서 대(對)미 자동차 수출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추가협상으로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 시기를 3천시시(cc) 이하는 4년, 3천시시 이상은 2년 정도 늦출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우리나라도 승용차 관세(8퍼센트)를 발효 즉시 4퍼센트로 낮춘 후 4년간 4퍼센트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협정 발효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철폐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수입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는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0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관세 철폐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양국 간 자동차 교역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도 지난 2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FTA 발효가 언제 될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보다 추가협상을 통해 조기 발효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협상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달리 현재 양국의 자동차 교역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다. 충북 진천군 현대모비스공장에서 작업자들이 회로기판을 조립하고 있다.

Q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부품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

자동차 부문 대미 수출의 약 38퍼센트(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부품은 협정 발효 시 관세가 즉시 철폐돼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재재협상에 포함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현행 수입관세상 우리는 8퍼센트, 미국은 2.5퍼센트의 관세를 물리게 돼 있어 미국의 관세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우리 자동차의 미국 내 현지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직접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급증이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Q 한·미FTA 폐기는 가능한가?

한·미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하고 2010년 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다.

재재협상 요구(10개)에 대한 한·미FTA 협상결과 비교

관련 분야		2007년 서명 협정문	2010년 추가협상
상품	개성공단 역외 가공조항	○	左同
	농축산물 주요품목(쇠고기) 관세 철폐	○	〃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정책	○	〃
서비스·투자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	〃
	역진불가조항(ratchet)	○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	〃
	중소상인보호 장치 확보	관련 조항 없음	중소기업위원회 설치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	左同
기타	의약품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	〃
	자동차 세이프가드	X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 특히 합법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 2백97건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협정이 파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G

글·손수원 기자

뉴시스

지난 3월 9일 '2012 독서의 해' 선포식이 열린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외수 작가가 책 나눔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다.

대한 讀립 만세!

'독서의 해' 2012년 올해는 하루 20분씩 읽으면 1년에 12권

구수한 종이 냄새가 나는 책장을 넘기면 그 속에서는 새로운 세상과 온갖 지식을 마음껏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책 읽는 재미다. 하지만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등 최첨단 통신기기의 출현, 온라인 게임, 프로 스포츠 등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독서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독서의 해'로 정하고 세대 간·계층 간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영국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는 사실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기반인 독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번 '독서의 해' 선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국민실태조사에서 성인 독서율이 2004년 76.3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2009년 71.7퍼센트, 2010년 65.4퍼센트 등 매년 줄어듦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독서의 해'는 영국이 1998년과 2008년에, 일본이 2010년에, 호주도 올해 지정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힘쓰는 사업이다.

인터넷·게임문화 확산에 성인 독서율 급감

문화부는 '독서의 해' 운영을 위해 우선 지난 1월 독서, 출판, 도서관 등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었고,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등 9명의 인사들이 추진위원으로 내정되었다.

'독서의 해'에는 ▲문화자원 연계 독서 진흥 프로그램 전개 ▲공생발전을 위한 독서 활동 집중지원 ▲생활 속의 국민 독서 분위기 확산 ▲독서동아리 민간기업 ▲단체 네트워크 구축 ▲언론 및 뉴미디어 연계 독서 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길 위의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강변 등 현장 탐방을 확대하고, 궁궐과 왕릉 등 '세계문화유산 연계 독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독서에도 공생발전의 이념을 도입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정서를 치유할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해서 독서 나눔 콘서트와 독서 버스·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내가 독서왕 선발대회', '대학생 독서 토론 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고전 강독회', '지자체와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한다.

언론 홍보를 통해서는 '2012 프로젝트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및 '지금은 책 읽는 시간' 등 독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라인 포털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을 활용해 파워트위터리언 등이 참여하는 독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9일,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문용린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이외수 작가 등 문화·독서·출판 관련 인사와 관련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2 독서의 해' 선포식이 열렸다.

독서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연계 행사

최광식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학교에서 지식 교육 위주로 하여 감성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다"며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책 읽기 운동을 통해 희망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독서의 해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외수 작가는 독서 특강을 통해 "사막에 싹을 피울 수 있는 게 바로 책이고, 책을 읽는 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은 선포식 행사와 더불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도서 1권씩을 기증했다. 또한 생각의 나무 만들기와 독서의 해 상징물로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G

글·손수원 기자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권, 한권 국민 독서량은 국가경쟁력"

올해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문용린(66) 교수는 인터넷과 TV 등의 매체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독서로부터 배우는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독서가 바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처럼 국민 총독서량도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서는 교양을 높이고, 교양은 사람의 품위를 높입니다. '사람다운 품위가 곧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 두보는 "사람은 필히 다섯 마차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란 말로 책 읽기를 강조했고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란 말로 젊은이들에게 책 읽기를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죠.

인터넷이나 TV 등이 독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난해 성인 독서율이 66.8퍼센트였어요. 국민 1백명 가운데 33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가 발전하면서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교양은 인터넷이나 TV 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흥미 위주의 정보에 기댈수록 사회는 가벼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더욱 책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책은 작은 창문입니다. 열면 바깥세상이 보이고 닫으면 방 안만 보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본다는 뜻이지요. 책을 읽으면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독서가 인류 진화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서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흥미를 느껴 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책을 읽을 때도 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하지요. 우선 자녀가 눈높이에 맞는 책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책을 읽고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독서하는 습관을 간직할 수 있지요. 저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것처럼 두드러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독서의 해를 맞아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인기 작가와 사회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서 나눔 콘서트를 열고 독서 버스·열차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게임중독과 학교폭력 피해를 치유할 독서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된 교하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시민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독서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에서 독서진흥 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2012년은 '책 읽는 사회' 첫 장을 여는 해

일상의 공간에서 즐거운 독서경험을 체득할 환경조성에 집중을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다. 지난 3월 9일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독서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각종 연례 행사들과 어우러져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는 일회성 이벤트에 주력하기보다는 '올해 종료되는 독서의 해'가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독서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1년에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EU(유럽연합) 평균보다 4퍼센트포인트 낮은 67퍼센트이고,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3퍼센트포인트 낮은 32퍼센트에 머물러 있다. 평균치와 비교해 이 정도이니 선두권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40대 이후의 독서율이나 도서관 이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책을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읽고, 책을 읽지 않는 인구는 더욱 증가하는 '독서 양극화'와 '책맹(冊盲)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 대학생들조차 취업 준비에 얽매여 책을 기피하는 '독서 공동화' 현상,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독서의 질을 따지지 않고 양적 지표만을 중시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1993년에 출판계를 중심으로 정부·언론이 적극 지원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책의 해' 경험과 선진국들의 '국민 독서의 해' 사례(영국 1998년·2008년 National Year of Reading, 일본 2010년 國民讀書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디지털환경 등을 깊이 고려해 책 읽는 나라를 주조(鑄造)하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사회적인 독서진흥 의제 설정을 분명히 하되, 생활의 장에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맞물리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독서의 해'의 핵심 목표가 독서인구를 늘리는 데 있다면, 일상의 공간에 독서환경을 만들고 즐거운 독서경험을 체득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벤치마킹

첫째, 범사회적으로 하루 10~30분 정도의 '독서시간'을 일과 중 필수시간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서동기나 독서습관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지정된 시간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더불어 읽는 체험을 통해 독서 생활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루 30분씩 1년이면 30권의 독서가 가능하다.

둘째, 공공의 독서 인프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도서관 밖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난 수년 사이 공공도서관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주민 생활권 안에서 도서 대출·반납이 쉽게 가능하도록 공공도서관마다 민간 시설과 연계한 관외 서비스센터를 다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정책 추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는 '지자체 독서진흥지수'를 도입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5년 전부터 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각 지자체는 주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나 독서진흥 예산 편성에 실제로 신경을 쓰는 곳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넷째, 독서 정보의 네트워크 확충이 절실하다. 그나마 책을 읽는 독자들도 베스트셀러 정보 의존율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팔리는 책'이 아닌 '좋은 책' 정보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수많은 추천도서나 우수도서 목록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성인들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정보 부족을 느낀다'는 비율(40퍼센트)이 매우 높고, 학생들이 학교·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으로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정보제공'(31퍼센트)을 첫째로 꼽는 등 좋은 책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크다(2009·2010 국민독서실태조사).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어린이들이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다섯째, '독서 마케팅'의 강화이다. 그간 뇌과학부터 영유아 인지발달,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습관, 노인 치매예방 효과에 이르기까지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독서의 실제적 효용성을 '독서과학'으로 종합해 집대성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책 전문 케이블방송 채널을 설립하는 등 디지털 영상시대에 걸맞은 책 정보의 발신기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독서 소외계층 위한 '도서기증센터' 설립을

여섯째, 대개 사회적 약자층과 겹치는 다양한 독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도서기증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자와 피지원자의 매개 창구로 삼았으면 한다. 신체·경제·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책과 접하기 어려운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기업과 개인 등 사회적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진흥과' 신설이 필요하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소관 범위가 매우 넓고 전국 단위 업무가 적지 않지만, 현재는 도서관정책과의 담당 사무관 한 명이 도맡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독서진흥전담팀을 운영하는 사례(군포시)가 있는 것에 비추어 과소한 중앙정부의 독서진흥 추진동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이외에도 빈사 상태인 동네서점 육성을 비롯해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부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국민생활의 일상에까지 스며드는 '독서의 해'를 만들어 책으로 행복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글·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지금은 마이스터고 시대 맞춤형 인재 키운다

마이스터고가 각광받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에 강하다는 게 매력이다. 현재 재학생들의 81퍼센트가
이미 취업을 결정한 상태다. 정부의 목표는 졸업생 전원 취업이다. 정부 지원도 풍성하다.
학비와 기숙사비가 모두 무료다.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7개교가 추가로 개교해 모두 2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마이스터고가 그 문을 열고 있다.

일러스트 · 박상훈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가 주목받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올해 7개교가 추가 개교해 모두 2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충북 진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열린 7개 마이스터고 합동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관계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했다.

학생은 취업 보장… 기업은 인재 조기 확보

이명박 대통령 합동개교식 참석… "앞으론 기술인이 존경받는 시대"

마이스터고는 우수한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2010년 도입한 고교 과정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취업 걱정이 사라지고 기업은 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창구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학력 인플레'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으며 기업들의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충청북도 진천에 소재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 새로 문을 여는 7개 마이스터고의 합동 개교식이 열린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마이스터고는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합동개교식에 참석해 "정부도 앞으로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학교가 서로 협력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2010년 첫 신입생을 받은 마이스터고는 이미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률이 높다.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니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품질명장협회, STS반도체 통신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채용과 교육지원 등 산학협력을 약속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재학생 81퍼센트 취업 예약

개별학교와 채용협약을 맺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무려 1천5백6개의 기업이 2010년 개교한 21개 마이스터고와 채용협약을 체결해 2천9백5명을 채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전체 재학생의 80.7퍼센트가 졸업도 하기 전에 일자리를 확보한 것이다.

마이스터고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산업수요에 맞춰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양성하니 기업으로선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 맞춤형반'과 'IP-마이스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맞춤형 교육 과정이다.

기업 맞춤형반은 개별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대전 동아마이스터고는 삼성전자, 삼성SMD, 삼성LED 등의 주문식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반도체고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반을, 구미전자공고에서는 LG전자와 LG이노텍반을, 울산마이스터고는 한화케미컬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IP-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일종의 특허기술 공모전이다. 협력기업이 제시한 현장의 혁신과제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주제에 대해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이를 지식재산으로 만든다. 특허전문가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할 역량이 있는 기술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과정이다. 지난해 21개의 아이디어가 한국발명진흥회의 인증을 받았으며 특허 등록도 진행되고 있다.

수업료 · 등록금 · 기숙사비 전액 국비지원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전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방침이다.

산업체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는 것도 산업계 수요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산업체 출신 교장은 한국전력 출신의 강희태 수도전기공고 교장, 삼성전자 출신의 위성욱 동아마이스터고 교장, LG전자 출신의 최돈호 구미전자공고 교장 등 10명이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도 전원 제공하고 있다.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겐 별도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성장경로(Career Path)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기업체와 협력을 유도해 졸업생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대 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을 통해 일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 글 · 변형주 기자

마이스터고 현황

지역	학교명	분야	주요 협약 기업	정원	비고
서울	미림여자정보고	뉴미디어콘텐츠	삼성SDS	120	
	수도전기공업고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200	
	서울로봇고	로봇산업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160	2013년 개교 예정
부산	부산기계공업고	기계	선보공업, 엘에치이	300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	르노삼성자동차, 넥센타이어	120	
	부산해사고	해양	범진상운, 신성해운	160	2012년 개교
대구	경북기계공업고	기계·메카트로닉스	SJ이노텍, 쉘라인	300	
인천	인천전자고	전자·통신	ODA테크, 세일전자	160	
	인천해사고	해양	에스제이탱커, KSS해운	120	2012년 개교
광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자동화설비	링크라인아이엔씨	80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전자·기계	삼성SMD, 지멘스	200	
울산	울산마이스터고	기계·자동화	풍산금속, 고려아연	120	
	울산에너지고	에너지	한라전기, 삼보전력	120	2012년 개교
경기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이렌택, 에이테크솔루션	160	
	평택기계공업고	자동화·기계	대승, 만도	160	
강원	원주의료고	의료기기	리스템, 누가의료기	160	
	삼척전자공업고	발전산업	남부발전, STX	80	2013년 개교 예정
충북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	하이닉스반도체, 세미텍	100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CJ제일제당	100	2012년 개교
충남	합덕제철고	철강	현대제철, 동부제철	100	
	공주마이스터고	SMT장비	삼성SMD, 하나마이크론	80	2012년 개교
	연무대기계공업고	자동차부품제조	충남테크노파크, 삼성전기	100	2012년 개교
전북	군산기계공업고	조선·기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180	
	전북기계공업고	산업기계	만도, 이엘케이	300	
전남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	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	100	
	전남 생명과학고	친환경 농·축산업	전남도내 영농조합법인	100	2013년 개교 예정
경북	구미전자공업	전자분야	LG이노텍, LG전자	280	
	금오공업	모바일제품	메인텍, 세영정보통신	200	
	포항제철공업고	철강산업	포스코, 포스코특수강	160	2013년 개교 예정
	평해공업고	원자력발전설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80	2013년 개교 예정
경남	거제공업고	조선	삼성중공업	160	
	삼천포공업고	항공·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신항공	100	
	공군항공과학고	항공기술	공군교육사령부, KAI	150	2012년 개교

문의 www.meister.go.kr

공군에 꼭 필요한 전문 기술인을 꿈꾸는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이다. 왼쪽부터 정혜림(3학년), 하정윤(1학년), 김기홍(1학년), 이준기(3학년).

우주시대 선도할 젊은 인재 무럭무럭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최대 5개… 재수해서라도 가고 싶은 학교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이 즐비하다. 취업난을 뚫기 위해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몇 년씩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올해 개교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졸업생 전원이 공군의 항공기술 부사관으로 임관해 복무하고, 7년의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는 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길도 찾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특성화고다.

"다른 학교 다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공부 스트레스가 적어요. 고3이 되어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죠. 시험기간에는 학교공부에 매달리지만, 평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요. 전공분야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사진이나 요리, 커피에 대해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경남 진주시 금산면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위치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과학고) 3학년 정혜림(19)양은 여느 학교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다부진 목소리로 답변했다.

항공과학고는 원래 공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학교로, 1969년 공군간부학교로 개교했다. 최근 고졸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올해 마이스터고로 변환개교했다.

졸업생 전원이 공군의 항공기술 부사관으로 7년간 의무복무한다는 기존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선통신공학, 항공기계요소 같은 과목이 늘어났고, 국가기술자격증 필수취득 같은 졸업인증제도가 신설됐다.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해 창의·적성 실기평가와 국가유공자,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도 도입됐다.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기숙사 리모델링도 진행 중이다.

항공기술 부사관 양성… 부사관 임관 후 야간대 진학 가능

항공과학고를 졸업하고 7년간 공군 부사관 의무복무를 마치면 희망에 따라 계속 군에 남거나 관련분야 민간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또 자기 계발을 원할 경우 부사관 임관 2년차부터 야간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의 70퍼센트 이상을 국비 지원한다.

입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기숙사비, 등록금, 학습기자재, 식사, 교복 등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전액 국비 지원된다는 점도 매력이다.

김진식 항공과학고 교장(대령)은 "항공과학고는 사실 마이스터고 지정 이전부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셈"이라면서 "우리 때만 해도 기술학교는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확실한 꿈을 가진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계과 3학년 이준기(19)군은 "항공정비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항공과학고에 들어왔다"면서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다. 엔진을 비롯해 항공기 기관을 정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졸업한 선배들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항공과학고는 매년 1백50명을 모집하며, 학년당 6개 학급으로 정원의 10퍼센트를 여학생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모집에는 2천3백명이 몰려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며, 입학생 중에는 재수한 학생들도 적지 않다. 매년 7월 내신으로 1차 접수한 뒤 국어·영어·수학·과학·국사 과목에 대한 본고사를 치르고 최종 면접을 통과해야 합격한다.

일반고 다니다 입학·1년 터울 남매 입학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이색 사연을 지닌 입학자도 눈에 띈다. 이번 학기 신입생인 김기홍(18)군은 일반 고등학교를 한 학기 다니다 재수해 항공과학고에 입학했다. 김군은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 계발에 매진하고 싶었다"고 입학 이유를 설명했다.

신입생인 하정윤(17)양은 오빠 하성우(18)군과 나란히 입학했다. 오빠가 한 해 재수해 같은 해 입학하게 된 것이다.

항공과학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공에 따라 2~5개씩 자격증을 들고 나간다.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인 2008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졸업 당시(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1백50명 중 1백41명이 전공 관련 4백53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1인당 3.21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중도에 진로를 변경했다.

한편 항공과학고 졸업생 전원이 공군 부사관으로 의무복무하지만, 이처럼 중도에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들을 위해 전문인력으로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교사를 두고 학생들의 생활·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도 돕고 있다.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쌍둥이지만 선후배 이성수·성민군

"7년간 의무복무는 짐이 아닌 새로운 기회"

이성수(왼쪽)·성민 형제

항공과학고에는 재미난 사연을 지닌 학생들이 많다. 쌍둥이 형제가 서로 다른 학년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성수·성민 형제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형제는 1994년생 쌍둥이. 2010년 함께 항공과학고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형은 붙고 동생은 떨어졌다. 동생인 성민군은 다시 1년을 더 공부해 2011년 합격했고, 18년 동안 '야, 자' 하던 일란성 쌍둥이는 지난해 상급생과 신입생으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불합격으로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다시 준비를 해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래도 형이 먼저 들어와서 도움이 많이 됐죠. 형이 '이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고 어떠어떠한 게 중요해'라고 미리 말해주니 적응이 빨랐죠. 형이 공부가 좀 약해서 성적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됐지만요."

동생 성민군의 폭로성 발언에 형 성수군이 겸연쩍다는 듯 씩 웃었다. 형만한 아우 없다고 했던가. 입학이 1년 빨랐던 형은 동생의 알찬 학교생활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제가 반장을 해보니 많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고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꼭 임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동생은 형의 충고에 따라 1학년 때는 학년대표를 맡았고 2학년 때는 반장을 맡고 있다. 두 형제의 애로사항은 서로 얼굴보기가 힘들다는 것뿐.

"형이 2학년 교실로 오면, 친구들이 저로 착각해 장난을 치죠. 때리기도 하고. 형은 그게 싫어서 잘 안 와요."

사실 동생 성민군은 항공과학고 입시에 실패한 뒤 다른 특성화고에 입학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했다고 한다.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거든요. 성민이가 재수할 때 제가 받은 월급으로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했죠."

둘은 마주보며 '그랬었지'라는 표정으로 웃음을 주고받았다. 10대다운 쾌활함과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이 함께 배어나왔다. 그래도 중학교 3학년이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3년과 졸업 후 부사관 복무 7년까지 10년의 미래를 결정한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을까?

"사실 후회도 했어요. 이곳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성수)

"저는 학교가 적성에 맞아요. 전공과목도 마음에 들고요. 수업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성민)

두 사람은 항공과학고에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성수군은 "적응하니까 좋아요. 방학 때도 6시에 일어나요. 다른 학교에 다녔으면 안 그랬겠죠"라면서도 "그래도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라며 살짝 하소연하기도 했다.

반도체 핵심기술 〈표면실장기술〉 SMT 엔지니어 양성

1·2학년은 공통과정… 3학년 땐 협약업체별 맞춤학급 편성

공주마이스터고는 전국에서 유일한 SMT분야의 마이스터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연말 '개교 준비 마이스터고 평가'에서 일반 마이스트고 중 사실상 1위를 하는 등 초기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이 학교에는 어떤 인재들이 있을까.

공주마이스터고는 SMT분야 국내 유일 마이스터고라는 이점을 살려 국내 최고 마이스터고를 지향하고 있다. 윤여신 교장과 신입생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공주공고는 공주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3월 5일 첫 신입생 84명이 입학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이 신입생들은 5.6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 화제가 됐다. 윤여신 교장은 "웬만한 인문계 학교보다 성적이 더 좋아 공주시에서 지역학생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이스터고는 대체로 성적이 좋지만 이 학교가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한 SMT(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분야 마이스터고여서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이다.

SMT는 PCB(인쇄회로기판)에 부품의 리드를 삽입하지 않고 부품을 부착해 납땜하는 기술로,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제조기술이자 공학기술이다. SMT는 가전기기부터 첨단컴퓨터, 통신·군사기기, 우주항공산업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이다. SM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창업도 가능하다.

입사 때 호봉 우대… 軍서도 전문 보직 맡아

이 학교는 SMT 단일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1·2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3학년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코스제 전공(SMT장비 전공, PCB설계 전공)을 선택해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3학년 때는 협약업체별 맞춤학급을 편성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삼성테크윈반, 삼성SMD반, 하나마이크론반, 미래산업반 하는 식이다.

이 학교는 SMT분야 미래 주도형 인재를 양성하며, 현장실무능력 중심의 창의적 SMT 장비 설계, 운용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 PCB설계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윤 교장은 "SMT 분야 산업수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SMT기능사, SMT산업기사가 있다.

졸업 후 진로를 보면 SMT 장비운용유지·보수, 작업공정설계 및 프로그래머, 설비관리 매니저, 솔더(Solder) 개발전문인력, 자동화장비 설계분야로 진출한다. 또한 회로설계, PCB아트워크 및 제조 분야, 소프트웨어 코딩 및 하드웨어 구성분야, 자동화장비의 조작 라인운영, 공정관리 등을 통해 SMT 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 삼성테크윈·한국중부발전·충남테크노파크·신동아전자·천지산업·STS 등 굴지의 기업·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윤여신 교장은 "마이스터고는 특별대우를 받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인사트랙을 별도로 신설해 3호봉을 줍니다. 1호봉은 고졸이고 2호봉은 전문대졸이니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전문대졸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셈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은 군대 가서도 SMT 계통으로 보직을 배치해 줍니다."

기업 위해 '졸업생 인증시스템'도 운영계획

사회에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만큼 이 학교도 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장, 교감을 포함해 우수 교사 30명이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명문고처럼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를 꾀하고, 한 세트에 7억원 하는 고가 장비인 SMT 풀라인 세트를 2세트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학교' 개념을 도입해 이 장비를 기업에게 빌려줘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운영비도 번다. 이 학교는 '졸업생 인증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기초, 전문기술, 외국어, 정보화, 직업윤리·인성 등 5개 부문에서 점수별 등급을 부여해 기업에 참고가 되게 할 방침이다.

신입생 오준호(16·서울 충암중 졸업)군은 "충분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실력이었지만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고자 전국 유일의 SMT 분야 마이스터고인 공주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며 "SMT 분야의 엔지니어로 성장한 후 꼭 내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교장은 "제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며 "우리 학교를 전국 최고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박영철 기자

이기준 마이스터부장

"맞춤형 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심혈 기울여"

공주마이스터고는 초창기부터 개교 준비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윤여신 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고생했지만, 특히 이기준 마이스터부장의 공이 컸다"고 말했다. 이기준 부장은 충남대 전기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1991년 2월 교단에 선 이래 열과 성을 다해 뛰어난 업적을 많이 쌓았다.

2010년 11월에는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공주마이스터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마이스터부장은 마이스터고의 핵심 보직인 만큼 업무 강도도 세다.

공주마이스터고가 지난해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한 '2011학년도 개교준비 마이스터고 평가'에서 전체 2위의 성적을 받았다면서요.

전체 2위지만 1위를 한 학교가 특수 분야의 학교여서 일반 마이스터고 중에서는 사실상 1위를 한 셈입니다. 공주마이스터고에 오기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경험을 살려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했는데 학교 구성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평가받아 기쁩니다.

우수 업체와 협약을 많이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이스터고의 지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고 관계가 충실하느냐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중부발전, 충남테크노파크, 삼성테크윈, 신동아전자, 에스엠트로닉스, 천지산업, 청파이엠티, STS(주), 비케이전자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데 만족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업체별로 방과후 맞춤취업 동아리반을 운영해 학교에서 회사별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했고, 취업 시 바로 현장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사 간 맞춤형 인력양성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맞춤학생 취업, 산학 겸임교사 지원, 학생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 지원, 노후 기자재 지원을 통해 확고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해병대 캠프 반응이 좋았다는데요.

지난 2월 14일 신입생 전원이 충남 태안의 해병대아카데미에 입소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다소 산만하고 나약한 면이 많아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겨워했으나 나중에는 역경을 견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시련을 함께 겪은 학우들과 협동심이 싹트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입생 중 여학생이 15명이지요.

우리 학교는 크게 장비와 설계로 나뉘는데 장비 유지·보수와 설치는 남학생이, 설계는 여학생이 유리합니다. 여학생들은 군 공백이 없어 기업에서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여학생을 더 뽑을 생각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됐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홀수 주는 학생들이 주말에 귀가하고 짝수 주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주말에 체육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차세대 바이오산업 기술명장을 키운다

국내 첫 생명과학 분야 특목고… 20여 기업과 인력공급 협약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미래동력산업의 주축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큰 힘이 보태어졌다. 충북 진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앞으로 이 학교는 국내 유수 바이오 관련 산업체의 노하우를 전수해 차세대 바이오 기술명장(名匠)을 탄생시킬 것이다.

"글로벌 바이오인 육성"

다소 낯선 '바이오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건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생명과학 분야 특수목적고인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바이오고)다. 원래는 특성화고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였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지난 3월 5일자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첫발을 뗐다.

바이오고의 개교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또 하나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충북 지역에는 오송보건의료첨단복합단지를 비롯해 오창과 진천, 음성 지역 등에 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여기에 더해 진천에 바이오고가 들어섬으로써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요람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학식 참석… 학생들 자부심 높여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3월 5일 바이오고 입학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같은 날 개교한 전국 7개 마이스터고와 공동 입학식을 가졌다. 한석일 부장 교사는 "입학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덕분에 학생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면서 "바이오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이스터고인 만큼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1백14명의 신입생을 맞은 바이오고는 경쟁률이 4대1에 이를 만큼 인기가 좋았다.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이기에 학생 전원에 기숙사가 제공되고 수업료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충북 진천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에 참석해 전국 7개 마이스터고의 새출발을 격려했다. 행사가 끝난 후 온실에서 원예 수업중인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이 대통령.

바이오고는 바이오식품과와 바이오제약과 두 개 반으로 운영된다. 바이오식품과는 바이오 자원을 이용해 바이오식품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기초 원리와 지식을 배운다. 졸업 후에는 바이오식품의 미생물 배양 및 발효식품 개발, 식품위생안전관리, 식품 분석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 취업한다.

바이오제약과는 생명공학기술의 원리를 토대로 세포를 연구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균주를 개발·배양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아직 학기 초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외국어와 전문기술교육을 비롯해 인턴십과 해외연수 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바른 인성과 소양 갖춘 전문인재 양성이 우선"

바이오고는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맺었다. 덕분에 학기 중 산업체를 견학하거나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최근 한 국내 실험기기 기업에서는 6억5천3백80만원 규모의 실험기기를 바이오고에 공급하기로 해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다. 바이오고가 인력공급 협약을 맺은 기업은 20여 곳에 달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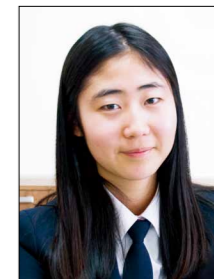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다. 한 예로 바이오고는 학생들이 3년 동안 생활하게 될 기숙사에도 신경을 썼다.

한석일 교사는 "학교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과 후 기숙사에서의 생활"이라며 "우리 학교에서는 낯선 학교환경에 좀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MBTI(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해 성격이 비슷한 학생끼리 방 배정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신 지역과 출신 중학교를 적절하게 안배해 학생들이 두루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성적과 취업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과 소양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G

글·손수원 기자

올 수석입학 양지현양
"꿈을 이루고 취업보장도 돼 맘에 들었어요"

손수원 기자

올해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 수석입학한 양지현(17)양은 인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사이에서 무척 고민했지만 미래의 꿈에 조금 더 일찍 다가서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노력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제약 분야의 마이스터가 될 일만 남았다"며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 진학을 할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진천생명과학고가 바이오마이스터고란 특수목적고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이스터고는 아버지가 적극 추천하셨어요. 제 장래를 위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인문계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인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진학 중에서 선택하기가 고민되지 않았나.

사실 마이스터고에 원서를 넣기 전까지 갈팡질팡했어요. 하지만 인문계고 졸업 후 대학에 간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 것도 걱정되었고, 경제적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결국 마이스터고에 원서를 넣었어요. 국가지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는 점이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점,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매력적이었죠.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이오마이스터고라고 생각했어요.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약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약 이름은 무엇인지, 이 약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등을 항상 궁금해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약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학교도 약학과에 가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마침 바이오마이스터고에 바이오제약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제 꿈을 이루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죠. 졸업 후에는 제약 품질관리나 식약청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국민이 먹는 약을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키울 거예요. 미래에 제 목표를 이루었을 때엔 지금의 제 선택이 맞을 거라고 확신해요.

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일반고에서는 주로 책으로 지식을 얻잖아요. 하지만 마이스터고에선 산업체나 공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또 어학연수나 국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등을 갈 수도 있어 더욱 기대됩니다.

자동차 부품소재 기술 인재의 요람으로

3개과 1백명 선발… 지역 8백여 기업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17일 충남 논산의 연무대기계공고를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인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무대기계공고는 올해 5개 학급 1백명 규모로 학생을 선발해 지난 3월 5일 개교했다. 앞으로 연무대기계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도내 자동차 관련기업 8백여 곳과 산학협력해 기술명장(名匠)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쏟아지던 지난 3월 6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대기계공고 정문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명품 마이스터고'라는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 학교 연구동아리인 '동력제어반'은 오는 4월 지방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5~6평의 공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메달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패한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실습실에서 공정제어장치(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을 짜고 작업판 전선 연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4월 도내대회 우승에 이어 9월의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회로도를 형광펜으로 마킹하며 작업하고 있던 김정민(전기과 2년)군은 "동력제어장치의 복잡한 회로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까다롭다"면서 "작업 조건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신호등이 켜지거나 자동주차 시설이 작동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목표로 구슬땀

연무대기계공고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중소기업청 특성화사업의 하나인 맞춤형 인력양성 우수학교로 선정됐고,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취업 우수학교로 발표되기도 했다. 충남지역은 2008년 합덕제철고, 2010년 공주공고에 이어 연무대기계공고가 제4차 마이스터고에 선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됐다.

연무대기계공고의 정밀기계과 학생들이 오는 4월 도내 기능경진대회를 앞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연무대기계공고는 형제특장차 등 약 25개 업체와 산학협력체제를 맺고 있다.

한명우 마이스터부장(기계 담당교사)은 "연무대기계공고는 현대파워텍, 케이디 등 충남지역 경제 비중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 소재 생산업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력을 배출한다"면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은 충남 도내 서산, 아산, 천안 등에 밀집한 자동차 부품 소재 가공기업 8백여 곳과 협력해 기술명장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무대기계공고는 자동차 부품 소재를 가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기존학과를 자동차 소재가공과(2학급), 자동차 전장제어과(2학급), 자동차 금형과(1학급)로 학과개편을 단행했다. 연무대기공은 신입생 모두에게 3년간 전액 학비(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최신식 기숙사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내 손으로 자동차 만드는 꿈 이뤄야죠"

지난 3월 5일 충북 진천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회 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개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가 산학협력의 선도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원 산업체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새로 개교한 전국 7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해 연무대기계공고 김기동군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문구가 새겨진 학교별 동판을 전달했다.

김기동군은 "자동차를 내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 학교에 지원했다"면서 "집이 서울이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동차 금형(金型) 분야의 마이스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과 사진·오동룡 기자

황연수 교장

"6대1 경쟁… 마이스터고 출신 '귀한 몸' 시대 열 것"

"연무대기계공고는 대학 진학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본분에 맞게 '선(先)취업 후(後)진학'이 맞지,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2010년 9월 부임한 황연수 교장은 "지난해까지 80퍼센트 이상 대학진학률을 기록하다 최근 들어 거꾸로 취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동차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연무대기계공고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연무대기계공고가 자동차 관련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가의 기술수준을 대표하는 종합 기계산업으로 최근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충남지역은 서산에 현대차가 있으며, 전주에 현대 상용차, 군산에 대우차 등이 있어 주변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전할 무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당부했듯이 마이스터고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만.

회사도 신규인력을 양성하려면 그만큼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이스터고에서 잘 양성된 기능명장급 학생들을 데려가면 회사도 이익이고 서로 상생(相生)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1백2명 모집에 6백18명이 지원해 6.18대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기반조성비 25억원과 운영비 6억원 등 31억원이 지원되며, 매년 6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4년까지 입영연기 및 군 특기병 근무, 우량기업 취업기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교과 과정을 어떻게 편성해 학생들을 기능명장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교사들을 한국기술대에 연수시키는 등 교원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2억3천만원의 비용을 투자해 8종의 교과서 개발도 의뢰했고, 실습실을 리모델링하고(6억원), 17억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수치제어선반·자동차전장제어실습장치 등 최신 기자재도 10억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마치면 방과후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각종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해 특기적성을 살린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황연수 교장은 "충남지역에는 현대기아차가 있는 데다, 관련 부품 업체가 8백여 개에 달한다"면서 "우리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뿌리를 내리면 그야말로 입도선매(立稻先賣)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글로벌 해운인력 배출

해사영어·생활영어 융합한 코티칭 수업 등 교과 강화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이하 부산해사고)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해양 마이스터고'가 됐다. 개교 이래 해운 전문인력을 양성해 온 부산해사고는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좀더 수준 높은 글로벌 해운 기술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해운 산업 환경은 굉장히 글로벌해졌습니다. 해운 관련 고급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부산해사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은 학생들에겐 수준 높은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고, 해운 산업체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해사고 이상문 교장의 말이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에 있는 부산해사고는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라는 가치 아래 해기사의 자질을 높이고 우수한 해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월 현재 총 7천2백여 명의 해운 전문인력을 배출한 국립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1백퍼센트, 동일계 대학에 진학하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도 취업률 95퍼센트에 이르는 '취업 명문고'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교육청 평가 취업률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취업 명문고' 명성 이어가

현재 부산해사고에는 항해과와 기관과가 개설돼 있다. 항해과에서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경제적인 운항·관리에 적합한 전문 항해사를 양성한다. 기관과에서는 해운산업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을 가진 국제적 역량의 기관사를 양성한다. 졸업 후 항해과는 상선 해운업체 항해사로 해운·조선·항만 물류 관련업체 등에, 기관과는 상선해운업체 기관사로 해운·조선·항만 물류 관련업체나 열관리·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다.

부산해사고는 2011년 11월 25일자로 국내 최초 해양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을 과감히 단행했다.

우선 올해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에 들어간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해 5월에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교과 과정의 기본틀을 짰다. "기초부터 산업체 맞춤형 교과과정을 짠 것이 특징"이라는 게 이 교장의 설명이다.

산학협력위원회와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교재 개발도 함께했다. 종전 3학년에 1년 동안 진행하던 실습을 올해부터는 2학년 1학기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전 학년이 함께 6개월간 단체실습을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미리 취업이 약정된 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산업체 차원에선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시간을 줄이고 학교 차원에선 1백퍼센트 취업률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국립 부산해사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인재상에 부합하는 영어교육 방안을 재편했다. 영어 코티칭 수업이 대표적이다.

학교 역량강화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만들어

학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도 만들었다. 산업체의 신뢰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한 인증제도를 개발, 정착시키는 한편 글로벌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영어교육 체계를 재편했다.

전문교과의 해사영어와 보통교과의 생활영어를 융합하는 코티칭(Co-Teaching) 수업이 대표적이다. 부산해사고에서는 실무영어 수업에 전문교과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참여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5일 수업 중 2일은 실무 위주 영어집중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산학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성공적인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해 국내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외 글로벌 기업까지 산학협력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교장은 "이미 마이스터고 전환 이전부터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해 온 부산해사고는 앞으로 '해양 마이스터고'에 걸맞게 해운 관련 전문 능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해기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박근희 기자

백인흠 마이스터 기획부장

"산학협력 강화로 취업률 1백퍼센트 유지"

부산해사고는 마이스터 기획부를 따로 만들어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해 왔다. 백인흠 부산해사고 마이스터 기획부장은 "앞으로도 마이스터 기획과가 주축이 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취업률 1백퍼센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사고 마이스터 기획부의 기능은?

본교 마이스터부는 다른 마이스터고와 달리 마이스터 기획과 산학협력부를 통합한 부서의 기능을 합니다. 1년 전부터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산학협력 체결 및 채용약정, 산학장학금 확보,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직무분석, 교재개발, 졸업생인증제, 마이스터고 발전계획수립, 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과과정 개편으로 전문교과의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이를 지도할 산업체 전문가들을 초빙했습니다. 15과목 전문교과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 교복, 책, 방과후 수업, 전문 동아리 수업 등의 교육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특히 본교는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선진교육기관 탐방, 장학금 지원, IMO(세계해사기구)회의 참석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부산해사고 경쟁력은 무엇인지요.

한국해양대학 출신 해기사는 조건이 좋은 선박에 승선해 대부분 졸업 후 3~4년 내에 거의 하선해 육상 해운기업에 취업하므로 장기 승선을 하지 않습니다. 본교 출신 해기사는 이러한 틈새시장, 즉 특수선인 케미컬 운반선 등에 승선해 전문지식과 경력을 쌓기 때문에 선주들이 선호하는 등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마이스터고 개교 전부터 이미 산학협력체제 구축이 잘돼 있어 백분율 상위 25퍼센트 이내 학생들이 지원하는 취업 명품 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기사 양성'을 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본교 졸업생이 취업하는 분야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해운기업에 종사하는 해기사이므로 선박 내의 외국인 선원과의 대화, 항만과의 대화, 선박과 선박 간의 대화 등 대부분의 업무가 영어로 이뤄집니다.

타국 선원들, 항만관계자들 등 외국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품성과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어교육과 함께 인성교육과 체력 신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해사고 산학협력 현황은?

KSS해운·동진상운·범진상운·IMS Korea·남성해운·신도꾸마린·동국상선·우림해운·새한선관·하스매니지먼트·한진 등 약 35개 해운회사와 산학협력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여개사와는 산학장학금, 실습, 연계취업 및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교는 산학협력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진로경로 확보를"

소질과 적성 갖춘 우수 신입생 확보… 도입 2년 만에 큰 성과

마이스터고는 도입 2년 만에 명실상부한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성공하려면 산학협력과 채용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을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모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고 산학협력 중심형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성화고는 산업수요를 고려한 교육을 목표로 하되 대체로 일반적으로 고졸 수준에서 고용 가능한 기술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졸업 시 우선 취업, 우선 진학의 경로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마이스터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와 성장 가능성, 괜찮은 일자리의 요건을 갖춘 인력양성 분야를 발굴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학업 병행의 진로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이스터고 교육의 주요 특징은 명확한 육성 인재상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에서 제시한 마이스터고 인재상은 직업기초능력 및 직업의식, 해외취업·기술연수 등이 가능한 실무 외국어(영어) 능력, 숙련된 기술·기능을 균형 있게 함양한 인재이다. 이와 같은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교준비 단계에서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교 단계부터 산업체와 교육과정 공동 개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의식, 직업기초능력, 글로벌 역량 등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외국어 교육, 산학연계 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와의 채용 약정 범위에 따라 별도반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특별 내용은 대체로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 교육, 단계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경로 선택과 연계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졸업생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업 채용 후 '직장 내 훈련(OJT)'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적응력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도입 2년 만에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체계적인 산학협력 기반 구축과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 신입생 확보가 대표적이다. 마이스터고의 교육 기반은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견고한 산학협력에서 비롯된다.

체계적 산학협력과 채용확대 노력 강화돼야

2011년 12월말 현재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천5백6개(학교당 평균 72개)이며,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인 한국조선협회, 한국반도체협회 등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기업의 83퍼센트 정도는 중견기업이며, 17퍼센트 정도가 대기업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의 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지원, 현장실습과 교사연수 지원 등 교육 참여활동과 우선 채용 약정 등이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 학교는 현재 협약기업이나 새로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약정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채용 후 경력개발 지원 개선 등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 신입생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2012년도 입학생은 학교별 지원율과 성적분포 등의 균형이 고르며, 면접 및 적성검사 등 성적 외 우수자의 특성이 뚜렷하고 지역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은 뚜렷한 진로개발 역량과 긍정적인 직업의식으로 높은 학습 몰입도와 자기주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개교 후 2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산·학·관의 협력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산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개교 준비 단계부터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마이스터고 학생들.

이 과정에서 마이스터고의 진정한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고졸 취업자를 위한 입영 연기 및 산업 기능 요원 제도 개선, 후진학 경로 마련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고교 지원에 대한 산업체 인센티브 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계속 추진 중이다.

인재의 우수성 인정받을 책무는 학교에 있어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은 잘 준비된 교육과 자격, 고용시장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행되어 졸업생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취업하고 미래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진로 경로를 확보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산학협력과 채용 확대 노력을 강화하여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산업체 대상 세제 혜택, 실습수당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무 유도, 인식 개선 등도 병행하여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육성 인재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학교별 자체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및 학교 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과 마이스터고의 이와 같은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운영 3년차를 맞이한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소질과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학교로서, 기업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벽을 넘어 비로소 실력으로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의 기준을 바꾸어가는 작지만 새로운 물길을 열어갈 것이다. G

글 ·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소장)

젊은 기술인력 육성은 국가 미래와 직결

우수기술인 양성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하도록 최대한 지원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도 빈약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그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현대자동차 역시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한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있었기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1세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이 중시되는 시기로 젊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고 선도모델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기술인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제도는 기술한국의 중흥기를 여는 획기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이스터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월에는 전국 9개 마이스터고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리고 향후 10년동안 1천명의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채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마이스터고 우수인재 선발을 이미 마친 상태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실업이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전국 9개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양해각서

현대자동차는 선발 전형과 아울러 기업 특성과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부터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기간 중 단기집중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재보조금, 급식비 명목으로 졸업 시까지 1인당 5백만원의 학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 현대자동차 인턴직으로 선발되어 심화교육 및 현장배치교육을 받게 되며, 병역의무 이행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10년 동안 1천명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울산 현대차 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심어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훌륭한 기술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산현장 진출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를 불식시키고 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마이스터고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우수기술인 양성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산업체 간의 공동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학습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해당학교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로 구성된 '산·학운영위원회'를 통해 채용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마이스터고 제도가 산학협력의 귀중한 롤 모델(Role model)로서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기술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우수기술인력 육성의 새 장을 연 마이스터고 제도를 기획, 운영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학교 관계자 외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G

글 · 윤갑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 · 부사장)

발달장애 극복한 스물세 살 청년 최준 씨

긴 판소리 사설 외운 덕에 세상과 소통

스물세 살 청년이 있다. 말하는 것도 지능도 일곱 살 수준이다. 그런데 그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쳐서 F음이라는 것을 맞출 정도로 절대음감의 소유자이고, 3시간짜리 판소리 흥부가를 외워 완창하고, 몇 년 동안 자신이 작곡한 곡을 악보 한번 안 보고 피아노로 연주한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장애인일까, 천재일까. 아니면 장애를 가진 천재일까, 천재가 된 장애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 청년, 최준씨를 만났다.

피아노 선율에 맞춰 판소리 적벽가를 열창하고 있는 최준씨.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노 병창'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최준(23)씨는 '판소리 말아톤'으로 유명하다. 영화 〈말아톤〉의 실제 모델이 된 배형진씨가 '백만불짜리 다리'로 마라톤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했다면, 최준씨는 판소리와 음악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해 '판소리 말아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씨는 생후 30개월에 자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장애 등급은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2급.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엔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스물세 살 건장한 청년이지만, 정신연령은 아직 일곱 살 수준이다.

정신연령 7세 수준… 장애2급 판정받아

자폐성 장애는 낯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나오지 못한다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말을 건네온다. 심지어 국립국악당, 남산국악당 등에서 개인 판소리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수많은 공연 무대에 올랐다.

고등학생 때 이미 판소리 음반을 내는가 하면, 'KBS국악한마당' '전국국악대전'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동랑청소년종합예술제 국악경연대회' 등 굵직굵직한 판소리 경연대회에 나가 수상하는 등 그 실력도 인정받았다.

"20년 전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의사가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살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 준이가 20년 만에 그 말을 뒤집었어요. 1~2년 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준이나 가족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23년 동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항상 지켜오고 있는 어머니 모현선(51)씨의 말이다. 모씨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던 준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은 '판소리'와 '음악'이었다"고 말했다.

"판소리를 하면서 언어가 발달했어요. 명사만 겨우 나열하는 수준이었는데 배운 판소리 사설들을 일상생활에 차츰 활용하면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도 해요."

어려서부터 유난히 특정 소리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던 최씨는 '절대음감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려서 내는 소리가 F음과 비슷하다는 것을 맞추고 한번 들은 곡은 음정,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해 낸다.

아버지 최정돈(55)씨는 "(준이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분짜리 곡을 하나 작곡하는 데 채 3분이 안 걸릴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준씨는 일상을 말로 얘기하고 글로 기록하는 대신,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기처럼 작곡하는 것을 즐긴다. 오선지 위에는 그의 나날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다.

끈질긴 연습으로 판소리 경연서 실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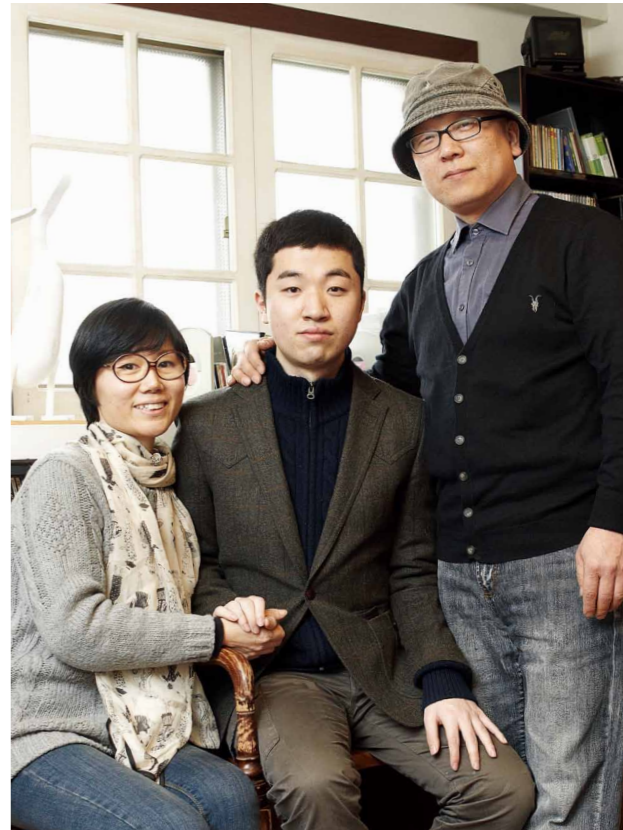
'축구경기를 바라보며'(2012년 2월 25일)는 얼마 전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을 관전하고 나서 작곡한 곡이다. 일종의 피아노로 표현한 관전평인 셈. '혼자서 목욕'(2012년 2월 29일)은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 목욕한 후의 기쁨을 담았다.

얼마 전 KBS 〈인간극장-아들아, 너의 세상을 들려줘〉 편에 출연해 훈훈한 감동을 줬던 그는 '인간극장 왈츠'라는 곡으로 방송 촬영 후기를 대신했다.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음악으로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그다.

최씨는 6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대개 발달장애아가 그렇듯 어린 최씨도 한 가지 음에만 집착해 하나의 건반만 치니 '피아노를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교습소에서 쫓겨나곤 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판소리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됐다. "치료 목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장구를 가르쳤는데 담당 선생님이 판소리 전공자라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게 됐다"는 게 모씨의 설명이다.

어려서부터 최준씨는 일반 아동들에 비해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끈질긴 연습벌레로 통했다. "무엇보다 아들 스스로가 '소리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게 아버지 최정돈씨의 말이다.

'판소리 전공'인 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현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건반을 전공하고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판소리 꿈나무에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는 게 어머니 모씨의 설명이다.

모씨는 "준이가 2008년 3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예비실기학교'에 다니면서 판소리로 한예종 입학을 꿈꿨으나 당시엔 정원 외 특별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접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최준씨 곁에는 어머니 모현선씨와 아버지 최정돈씨가 있다. 부부는 아들 최씨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아노 전공하며 '피아노 병창' 영역 개척

차선의 선택으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지만, 최씨는 판소리를 하는 피아노 전공자로서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피아노 반주와 판소리가 재즈처럼 불협화음인 듯 교묘하게 협화음을 내는 '피아노 병창'은 최씨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장르이기도 하다.

어머니 모씨는 "준이가 10대 때 '판소리를 하는 발달장애아'로 주목받았다면, 20~30대는 다른 뮤지션들과 똑같이 음악적 재능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와중에도 최준씨는 이따금 연습실에 들어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소리를 얹어 '적벽가'를 멋들어지게 뽑아냈다. 앞으로 뮤지션 최준씨가 오선지에 그려나갈 날들이 궁금해진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김잔디 기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구둔역. 양평을 지나는 중앙선의 간이역 중 드물게 기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양평 중앙선 간이역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서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떠올리다

문득 불어오는 바람 속 온기를 느끼며 길을 나서본다. 목적지는 양평.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고즈넉한 간이역 몇 개가 숨어있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청춘들을 실어 나른 중앙선 기찻길이 남겨놓은 소박한 풍경들을 만나러 간다.

판대역 전경. 지난 연말 여객업무가 중지된 간이역으로 개울 건너편에 들어선 신 역사에 자리를 내어 준 뒤 소박한 공간만이 남았다.

이마에 내려와 닿는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3월의 어느 날 오후 판대역 앞에 섰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된 개울을 스치는 명랑한 물소리와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쉼 없이 재잘대는 새소리와 신나게 뛰노는 동네 꼬맹이들의 낭창한 웃음소리들이 동시에 작고 낡은 역 주변을 부유하고 있었다.

판대역이라. 낯선 이름 아닌가. 사람들이 한동안 관심 가졌던 간이역들은 청량리를 출발해 춘천으로 향하는 경춘선의 간이역들이었다.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던 화랑대역이나 경강역, 백양리역이나 김유정역 등 말이다. 중앙선인 판대역은 양평과 원주의 경계 지점에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는 이곳 판대역을 지나 강릉으로 또는 안동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양평 · 원주의 경계 판대역

1965년 처음 승객을 태우고 내렸던 판대역은 지난 2008년 승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변경됐고, 지난해 12월 20일 저녁 8시 8분, 안동으로 가는 무궁화 1609편 열차를 떠나보낸 뒤 문을 닫았다. 개울 건너편 반듯하게 지은 신역사로 모든 업무가 옮겨가며 판대역은 시간의 뒤편에 남게 됐다.

네모난 건물 입구에 붙은 오래돼 반질해진 손잡이를 밀고 대합실 안으로 들어섰다. 격자무늬의 말간 유리창 너머로 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터라 긴 시간 사람의 온기가 없었음에도 공기는 그리 차갑지 않다. 서너 평 되는 손바닥만한 대합실에는 연두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게 다였다.

동그란 시계가 붙었던 자리, 네모난 액자가 있던 자리, 열차 시간표와 요금이 적힌 안내판이 걸렸던 곳은 이제 거뭇한 흔적만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기차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로 분주했을 오래전 어느 때의 시간을 더듬고 있던 순간, 멀리서 기차가 내뱉는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창 너머로 개울 건너편의 판대역 신역사가 눈에 들어왔고 곧게 뻗은 새로운 기찻길을 따라 몸집 긴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양평을 지나는 중앙선의 굽었던 철로가 지금은 대부분 곧게 펴졌다. 몇몇 역은 아예 사라져 크고 번듯한 현대식 건물로 재탄생했고, 폐역사가 된 뒤 이따금 옛 기억을 찾는 여행자의 방문을 받는 역들도 있다. 간혹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아 카메라 든 여행자를 맞고 틈틈이 영화나 TV 드라마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석불역과 매곡역 사이의 구둔역도 그중 하나이다.

판대역에서 서쪽으로 길을 달려 양동역과 매곡역을 지나 구둔역으로 가는 길. 작은 시골마을 지붕 낮은 농가들 사이로 난 외길을 따라 올라가면 구둔역이 나온다. 뾰족한 세모지붕을 가진 아담한 옛날식 건축물은 전형적인 시골마을 간이역이다.

구둔역은 수리봉(해발 4백미터)과 고래산(5백42미터) 자락에 둘러싸인 구둔마을의 이름에서 따 왔다. 아홉 구(九), 진칠 둔(屯)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이 지역의 높은 산에 아홉 개의 진을 설치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구둔마을 한가운데 들어앉은 이 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용문산 일대에서 약초와 취나물,

지평면에 있는 간이역으로 1967년부터 지난해까지 4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청춘들을 실어 나른 석불역.

두릅 등을 채취해 경동시장으로 팔러 나가는 노인들과 통학생들이 새벽부터 이곳을 찾았다. 게다가 '양평장'이 서는 날이면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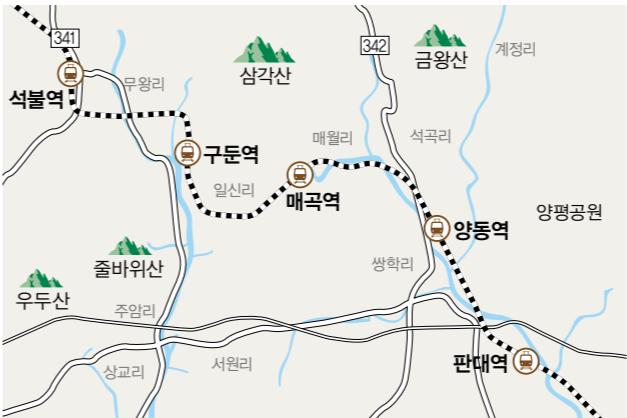
하지만 구둔역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용객이 줄자 구둔역은 1996년 결국 기차표를 팔지 않는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역사는 1940년 중앙선 양평~원주 구간을 개통하며 지어졌고 지난 2006년에는 보존가치가 인정돼 근대문화유산(제296호)으로 지정됐다. 대합실 출입구의 박공지붕 하며 지붕 아래 덧댄 차양 등은 건물의 입체감과 아름다움을 더한다. 게다가 하루에 8번 이곳에 기차가 선단다. 대합실에 켜 있는 석유난로의 따뜻한 온기에 안도감이 든다. 기차를 기다리는 두어 명의 승객이 반갑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둔역엔 아직 온기

여느 간이역과 달리 지금도 두 명의 역무원이 하루 3교대를 하며 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오는 가을쯤 덕소와 원주 사이의 중앙선 복선전철화공사가 완료되면 구둔역은 판대역이 그러했듯이 기차를 새 철로와 새 역사에 내어줄 것이다. 그나마 언제라도 찾아오면 이 어여쁜 역사가 여행자를 맞아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석불역 가는 길은 구둔역보다 더 의뭉스럽다. 논두렁 사이로 난 농로를 따라 들어가야 역으로 갈 수 있는 데다가 역사 주변으로 경계선 따위가 없어 자동차를 역사 안쪽으로 대놓을 수밖에 없다. 보통 기차역 광장은 역사 앞에 있는데, 이 역은 역사 안에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역사 중앙의 출입구 앞은 공간이 없는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대합실에서 문을 열고 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마도, 지금까지 본 기차역 중 가장 이상하고 희한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판대역 대합실에 걸려있는 중앙선 운임요금 표지판과 승차권함 내에 남아 있는 열차승차권. 폐철로 위엔 레일바이크가 달린다.

1967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석불역은 2008년 무배치 간이역으로 변경됐고 지난해 10월 이후 여객 취급이 중지됐다. 보통의 폐역사가 그러하듯 이제 곧 철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판대역보다 크기가 작은 대합실에는 서너 명쯤 앉을 수 있는 회색빛 나무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군데군데 글자가 떨어져 나간 운임표가 붙어 있었다. 더없이 쓸쓸하고도 묘한 분위기의 석불역을 둘러보고 나오려는데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과 만났다. "이젠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노인은 그때 그 기차의 속도 만큼이나 느긋하게 철로를 건넌다. 그의 발길을 눈으로 좇으니 철로 옆 조그마한 민가 한 채가 보인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노래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경치 좋은 폐철로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변신

한낮 잠시라도 볕이 따뜻하다면 기차 레일 위를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 용문면사무소 인근 용문역과 원덕역 사이 폐철로를 이용한 3.2킬로미터 구간이 레일바이크 체험장으로 꾸며졌다. 철길 건널목과 터널, 시골마을과 작은 개울을 지나는 왕복 6.4킬로미터의 거리를 다녀오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아침 9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1일 7회 운영된다. 주말이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다.

자전거 마니아라면 중앙선 자전거길 라이딩을 즐겨 봐도 좋다. 지난해 10월 양평을 지나는 중앙선 양정역에서 아신역까지 남한강 줄기 따라 뻗어 있는 18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경치 좋은 폐철로 구간이 자전거 도로로 변신해 개통됐다. 낡은 철교가 나무 데크 깔린 멋진 자전거길로 변했고 어두컴컴한 터널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단장했다. 몇 개의 운치 있는 간이역들을 둘러보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보자. 바람결에 어디선가 봄향기라도 섞여 온다면 더없이 멋지지 않겠는가.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판대역, 구둔역, 석불역 모두 양평군 내에 있지만 양동면 삼산리의 판대역은 양평의 동쪽 끝 원주와의 경계 지점에 있다. 구둔역만 기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면 구둔역에서 하차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양평읍내에서 6번 국도를 이용, 용문까지 간 다음 지평면 방향으로 가면 석불역에 닿을 수 있고 그곳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구둔마을 내에 구둔역이, 구둔역에서 88번 지방도를 이용해 15킬로미터 정도 가면 판대역에 도착한다.

먹을 곳 양평의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식재료는 고스란히 식도락가의 기쁨이 된다. 일단 용문산의 봄기운을 느껴보고 용문산이 길러낸 산채와 전통 장으로 만들어낸 밥상을 받아본다. 용문산관광지 식당가 중 4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식당**(☎031-773-3422)은 산채정식과 곤드레산채비빔밥이 맛있다. 용문산 입구 농가맛집 **광이원**(☎031-771-8800)은 대부분의 식재료를 양평에서 난 것들로 쓰는 로컬푸드 전문점이다. 직접 담근 전통 장과 효소로 간하고 맛을 낸 다양한 음식이 상에 오른다. 자작한 국물이 있는 강된장인 '뽁작장'을 곁들인 정식을 추천한다. 속 시원한 음식이 생각난다면 옥천면 냉면마을로 간다. 두툼하고 거친 메밀 면으로 반죽한 옥천냉면에 고기완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부러울 것 없는 봄날의 만찬이 완성된다. **황해식당**(☎031-772-9693)이 오래된 맛집으로 알려졌다.

잠잘 곳 '펜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수의 펜션들이 양평 일대에 늘어섰지만, 깊고 푸른 숲 우거진 양평에서의 하룻밤을 휴양림에서 보내면 좋겠다. 단월면 산음리의 **산음자연휴양림**(☎031-774-8133), 옥천면 신복리의 **중미산자연휴양림**(☎031-771-7166), **설매재자연휴양림**(☎031-774-6959), 양평읍 백안리의 **용문산자연휴양림**(031-775-4005) 모두 4개의 휴양림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설휴양림으로 이용요금이 비싸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최근 예약방식이 변경돼 매주 수요일(오전 9시)에 총 6주간의 숙박 빛 야영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휴양림 관련 문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로 하면 된다.

즐길 거리 남한강 줄기 따라 곳곳에 들어선 갤러리투어를 해본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양평군립미술관**(www.ymuseum.org)에서 시작해 양근대교를 지나 강하면 방향으로 가면 닥터박갤러리, 갤러리 와, 바탕골예술관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와**(☎031-771-5454)는 사진가 김경희씨가 6년 전 문을 연 사진전문 갤러리다. 갤러리 와 지척에 위치한 **닥터박 갤러리**(☎031-775-5600)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효상씨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녹슨 암적색 코르텐 건물은 흡사 미국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철판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물처럼 보인다. 남한강변 길을 잠시 벗어나 단석리로 가면 **숲속의 미술공원**(☎031-775-6945)이 나타난다. 실내 전시관보다는 천천히 산책하며 만나는 야외 조각 작품들이 더 볼 만하다.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월요일에 휴관하니 참고할 것.

AP연합

애플의 팀 쿡 CEO가 뉴 아이패드를 발표하고 있다. 뉴 아이패드는 전 세계적인 물량 부족이 예상되며 한국은 따로 인증절차가 필요해 1, 2차 판매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이패드2 발매 당시처럼 4월 중에는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아이패드' 발표… 살아 있는 '잡스의 힘'

CPU 속도·화면 해상도 등 하드웨어적 요구사항 거의 충족

애플이 드디어 뉴 아이패드를 발표했다. 잡스 사후 애플의 진로를 결정할 첫 제품으로 스마트TV와 함께 IT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애플답게 발표 직전까지 정식 제품명과 하드웨어 스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정보는 예측과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잡스 생전의 완벽한 보안에 비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다. 뉴 아이패드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알아보자.

뉴 아이패드는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하드웨어적인 요구 사항을 거의 충족함으로써 완벽한 기기가 되었다. CPU 속도가 빨라졌고 화면 해상도가 증가되었다. 이미지 처리량이 늘었음에도 그래픽 처리 장치의 코어 수가 4개로 늘어 속도 저하 염려가 없다. 화면 크기는 이전처럼 9.7인치이지만 해상도가 2048X1536으로 바뀌어 거의 4배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애플은 화면 해상도가 변해도 이미지 크기는 변하지 않는 해상도 독립 기술을 가지고 있다. 같은 크기에 해상도가 증가했을 때 글자가 깨알같이 작아지는 윈도우와 달리 글자 크기는 그대로이면서 정밀도만 향상된다.

때문에 LCD 격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해상도 뉴 아이패드로 보는 이미지는 이제 사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애플은 매년 새로운 제품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스펙을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기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 부분은 완성된 듯하다. 기술이 시장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 파괴적인 혁신이 발생한다. 더 이상 차별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패드가 계속 태블릿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트북·태블릿, 스마트폰·태블릿 융합 가속화

노트북도 점점 태블릿을 닮아가고 있다. 애플의 초경량 노트북인 맥북에어는 태블릿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애플 맥북에어의 영향으로 소위 울트라북이라는 윈도우용 초경량 초슬림 노트북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태블릿과 초경량 노트북이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트북에 모바일 CPU가 사용되고 고성능화된 태블릿에 가벼운 키보드가 장착되다가 어느 순간 운영체계까지 융합되면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아이워크란 뉴 아이패드용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8을 태블릿에 최적화해서 만들고 있고 인텔 CPU가 아닌 모바일 CPU용 윈도우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IT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PC의 종말이 예상보다 더 빠를지도 모른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융합도 진행 중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은 다양한 화면 크기의 모바일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3~4인치의 스마트폰, 5.2인치의 필기가능 제품, 7인치의 경량 태블릿뿐만 아니라 8.9인치와 10.1인치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LG에서 주로 발표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제품 성공 여부를 가리겠다는 전략하에 다양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시험 중이다.

아이패드의 진정한 대항마, 아마존 킨들 파이어

사용자 선호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용자를 이끌고 가겠다는 애플의 전략과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싸움에서 현재까지는 애플이 이기고 있지만 잡스가 없는 지금 최후의 승자는 어느 쪽일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애플은 아이패드로 태블릿 시장을 개척한 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공격이 거세지만 하드웨어 성능의 우위로는 애플의 아성을 넘는 데 역부족임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임원이 "태블릿 시장에서 선전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을 이길 방법을 알려준 것은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진정한 애플의 적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마존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우수성이나 저가 정책으로 애플을 이기려던 전략과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킨들 파이어는 저성능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제거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면서도 구글의 인증을 받지 않았고 구글의 소프트웨어도 내장하지 않았다. 이 모두를 생략함으로써 비용을 줄였다. 때문에 구글의 앱을 사용할 수 없으나 대신 아마존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킨들 파이어를 통해 아마존의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책을 내려받아 즐길 수 있다. 아마존은 하드웨어를 원가 이하로 파는 대신 콘텐츠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잘 팔리고 그만큼 소프트웨어 구매가 늘어나 다시 가격 할인 여력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DB

주요 태블릿PC 제품 비교

	뉴 아이패드	갤럭시노트10.1	킨들파이어
화면 크기	9.7인치	10.1인치	7인치
무게	652g	585g	413g
두께	9.4mm	8.9mm	11.4mm
프로세서	1GHz(추정)	1.4GHz	1GHz
메모리	16 · 32 · 64GB	16 · 32 · 64GB	8GB
해상도(화소 수)	310만화소	100만화소	60만화소
통신 방식	무선 랜 · 3G · 4G LTE이동통신	무선 랜 · 3G · 4G LTE이동통신	무선 랜
가격	499~829달러	미정(아이패드급)	199달러

사실 한국은 태블릿 시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LCD와 메모리, 낸드 플래시는 한국 제품이 압도적이다. 모바일 CPU와 통신칩 등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또한 한국 제품이다. 소프트웨어만 제외한다면 아이패드를 포함한 전 세계 태블릿 제품 생산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소프트웨어·플랫폼에 관심 기울여야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하드웨어적인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애플은 언제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집중해 왔다. 아이패드로는 책과 음악, 동영상을 감상하고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자교과서까지 발표함으로써 학습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마존을 제외한 그 어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지금이 오히려 애플의 콘텐츠 플랫폼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우리 기업들이 하드웨어적으로도 완성된 아이패드를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하루빨리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CPU 개수와 화면 크기만을 자랑하는 한 애플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맹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G

글·김인성(IT 칼럼니스트)

"키 컸으면"… 그럼 성장판부터 검사를

1년 성장 평균 4센티 못 미치면 '저신장' 의심… 원인 파악 먼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희선(가명)씨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의 키는 1백10센티미터. 같은 반 여학생들보다 작다. 김씨는 "할아버지도 키가 작았다는 말을 듣고 더 초조해졌다"고 말한다. 김씨는 요즘 종합병원을 찾아 성장요법과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의 키는 약간씩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 평균 키는 출생 시 약 50센티미터로 생후 1년간 25센티미터쯤 성장하고 그 후 2년까지 12.5센티미터 정도 더 자란다. 그 뒤로 1년에 6센티미터씩 자라고 급성장기인 사춘기가 찾아오면 연간 8~10센티미터 정도 큰다.

그렇다면 아이의 키가 자라는 원리는 무엇일까. 성장기 아이들의 키는 성장판(成長板·골단연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보통 "성장판이 닫히면 키 성장이 멈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성장판은 관절과 직접 연결되는 뼈의 끝 부분에 있는 연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연골 부분이 뼈와 같은 골질로 변하면서 뼈가 자라고 키가 커지는 것. 따라서 성장판이 닫혀 활동을 멈추면 자연히 키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성장호르몬 치료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내분비과 김호성(53)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성장호르몬 주사로 저신장을 치료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직접 호르몬제에 대해 묻는 부모도 많다.

하지만 이들 중 성장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김 교수는 "진찰을 받으러 온 아이 중에는 유전병이나 염색체 이상 등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단지 키가 작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학적으로 '저신장'이란 '같은 민족, 나이, 성별의 집단 표준 성장 분포에서 1백명 중 앞에서 세 번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키가 몇 센티미터 이하는 저신장'이라는 구분은 맞지 않다고 한다.

조선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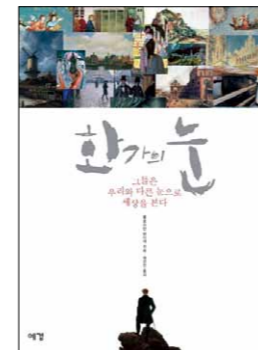
성장부진에 대해 상담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내분비과 김호성 교수. 김 교수는 "건강한 아이들은 뼈가 튼튼하고, 뼈가 튼튼한 아이들은 그만큼 키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또래 친구들보다 10센티미터 이상 키가 작거나, 1년 사이 평균 성장이 4센티미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저신장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은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운동요법이나 호르몬 주사 등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줘야 한다. 이때 성장판 검사를 통해 키를 예측한다.

김 교수는 "성장판의 개폐 여부는 엑스레이(X-ray) 촬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10세 이전인 아이는 손과 손목뼈를 촬영하며 10세 이후인 아이는 발뒤꿈치를 촬영해 판독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예측키가 너무 작으면 부모와 상의해 호르몬제를 투여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약용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전자식 주사기가 보급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늘이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 주삿바늘을 무서워하는 어린이에게도 쉽게 투약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우선이라고 했다. 편식은 절대로 금물, 비만도 조심해야 한다. 운동은 뛰거나 걷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과도한 중량 운동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키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성장호르몬은 깊이 잠들었을 때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G

글·오동룡 기자

〈화가의 눈〉 그림이 실제 풍경보다 낫네

플로리안 하이네 지음
정연진 옮김·예경·1만9천8백원

'그림 같은 풍경'이란 말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풍경 같은 그림'이라야 맞다. 그렇지만 실제로 풍경보다 그림이 더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 이런 모순된 표현이 생겼으리라.

독일의 중견 사진작가이자 미술사가인 저자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대표적 화가 21명의 풍경화를 '현장 검증'한다. 검증 대상은 조토, 뒤러, 고야, 뭉크, 세잔, 브라크 등과 현역 사진가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까지 이른다. 저자는 화가들이 스케치하고 유화를 칠했을 법한 딱 그 장소, 그 앵글을 찾아 비슷한 계절과 시간에 카메라 렌즈를 들이댄다. 덕택에 독자들은 수백 년 전 붓질하는 화가 등 뒤에서 풍경과 그림을 함께 감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 풍경과 그림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카날레토의 '베네치아의 산티 조반니 에 파올로 광장'(1726년경)처럼 지금 사진 속 풍경과 그림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화가들은 필요에 따라 풍경을 옮겨오고, 자르고, 생략하고, 비튼다.

유럽 대표화가의 풍경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한 신사가 자욱한 안개 가운데 봉우리만 솟아오른 산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유명한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독일 화가 카스파어 다피트 프리드리히(1774~1840)는 도저히 한 앵글에 들어오지 않는 산봉우리들을 '위치 이동'시켰다. 나폴레옹에게 침략당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담기 위해 이들 산을 하나의 화면 속에 재배치한 것이다. "화가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보이는 것도 그려야 한다"고 했던 화가다운 행동이다.

프랑스 화가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은 이 성당의 상징인 웅장한 첨탑 없이 몸통만 있다. 모네가 작업한 곳에서는 성당의 첨탑이 안 보였기 때문.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모네에겐 빛의 변화를 그림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성당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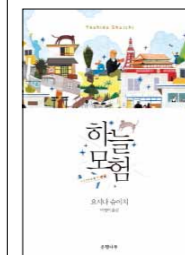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와 실제 풍경은 사진으로 보면 외형이 똑같다. 실제 카페는 예전에 사라졌지만 하도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 카페'를 찾자 아를 시(市)가 고흐의 그림대로 복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흐 그림엔 카페 차양 위 건물 사이로 보이는 검푸른 하늘에 황금색 별이 반짝이지만, 사진 속 밤하늘은 그냥 검다. 역시 풍경이 그림을 이기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G

글·김한수(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시로 쓰는 한국 근대사 1
신현수 지음 | 작은숲 | 1만4천원

현직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작가가 한국 근대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시들을 소개한다. 개화기, 일제강점기 등 대한민국 근대의 역사적 순간을 담은 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교과서로 암기만 했던 역사가 아닌 시를 통해 노래처럼 읽는 역사라는 점이 새롭다. 각 단원의 끝에는 동학, 개화기, 일제 강점기, 만주를 주제로 한 저자의 역사 강의도 볼 수 있다.

하늘 모험
요시다 슈이치 지음 | 은행나무 | 1만2천원

'여행'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12편의 단편소설과 11편의 에세이를 담았다. 일상에서 탈출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과 여행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에세이로 구성됐다. 여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순간의 감정들을 통해 따스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읽는 동안만큼은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게 하는 여행 선물 책이다. 컬러 일러스트는 보는 내내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한다.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피터 멘젤 지음 | 월북 | 1만9천8백원

1994년 세계 가족의 해를 맞아 유엔과 공동으로 기획된 책이다. 국제적인 사진작가인 피터 멘젤을 비롯한 15명의 사진작가들이 2년여에 걸쳐 전 세계 가족의 일상 모습을 담았다. 작가들은 한 가족이 가진 소유물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다양한 나라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보여준다. 나라별 가족이 가진 소유물의 차이와 다양성을 통해 지구가 직면한 자원의 한정성과 편중된 소비 구조의 문제점 등 세계화 시대에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공한다.

왕과 맞선 자, 과연 악인일까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선시대 정조 임금을 조명할 때 늘 그 반대쪽에는 심환지라는 인물이 그려진다. 그러나 선악의 틀은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심환지가 역사 속의 심환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우리 학계에서는 정조를 다소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환지를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실록을 통해 본 심환지는 임금에게까지 맞섰던 노회한 정치가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노론 벽파의 최고 지도자였다. 적어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노선을 바꾸는 짓은 하지 않았던 강고한 인물이다.

심환지(沈煥之·1730~1802)는 청송 심씨로 어려서부터 노론의 당색을 갖고 있었고 정치생활 내내 정조와 대립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마흔두 살 때(영조47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조3년(1779)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할 만큼 학문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후 암행어사, 대사간, 대사헌 등을 거쳐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내는 등 비교적 빠르게 승진했다. 그러나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관리로서의 능력보다 당파 영수로서의 지도력이었다.

정조는 노론 중에서는 자신이 길러낸 시파들을 중시했고 틈나는 대로 체제공 같은 남인들을 중용했다. 노론 벽파는 사실상 정조의 정적이었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심환지였다. 따라서 정조 시대를 제대로 조명하려면 정조만 부각하고 심환지를 매도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정조와 심환지의 피말리는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조를 좋아하느냐 심환지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2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편지는 그간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정조와 심환지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정조는 정국의 주요현안이 생길 때마다 심환지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고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시파에 대한 욕설까지 마다않으면서 심환지의 협조를 얻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의 싸움에서 승자는 심환지였다. 정조가 죽자 어린 순조를 돌보는 원상(院相)에 임명되고 영의정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심환지는 정조가 그처럼 공을 들였던 장용영이라는 특수부대를 없애버렸다. 정조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정조와 정치적으로 맞섰던 노론 벽파 영수
공노비 혁파 통한 노비제 폐지의 일등공신
천주교도 탄압한 신유사옥의 주동자 악명
변화 거부한 수구의 표본으로 역사에 낙인

게다가 그는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대비의 지원 속에서 전국의 공노비를 혁파했다. 노비제 폐지의 일등공신이 바로 심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역사에서 비난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실은 1801년 천주교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신유사옥의 주동자였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화 물결이 시작되고 근대화가 새로운 조류가 되면서 심환지는 변화의 물결을 거부한 수구세력의 표본처럼 낙인찍혔다.

게다가 순조의 장인인 안동 김씨의 김조순이 이끄는 시파가 벽파를 내몰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1806년 심환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관작(官職)이 추탈되었다. 안동 김씨 세도정치 기간 심환지는 악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은 풍양 조씨와 흥선대원군으로 이어진다. 1864년 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즉위한 직후 심환지의 관작이 복작된 것도 그 때문이다.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화가 날 때, 화를 낼 때

글과 그림 · 최영순

두 사람의 몸에 사는 하나의 영혼. 그것은 친구!
- 아리스토텔레스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다

〈‘한글로 그린 그림’과 ‘사고(四考)뭉치展’〉

〈한글로 그린 그림-한글화(畵)〉전에서는 다양한 한글화를 볼 수 있다.

‘한글로 그린 그림-한글화(畵)’가 3월 25일까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이야기 그림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반야심경구절로 그린 법정 스님, 성경구절로 그린 김수환 추기경, 이름 세 글자만으로 그린 얼굴그림 등 여러 가지로 시도한 한글화를 볼 수 있다. 한글화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한글로 그림을 그린 한갑근 작가의 작품들이다. 한글로 그린 그림으로 제작한 ‘한글화 동영상’, 한글을 쓰는 모습을 애니메이션화하여 전시하는 ‘한글 그리미’, 화면상에서 한글 글자가 자유롭게 유영하는 ‘한글유희’도 대형 모니터로 전시된다.

3월 27일부터는 한글이라는 공통 주제를 다양하게 풀어낸 ‘사고(四考)뭉치展’이 4월 22일까지 열린다. 직접 만지는 입체적인 활동까지 있어 한글에 대해 친근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장르의 작가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알린다는 마음 하나로 모여 기획한 전시다. 4명의 작가들은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G

정리·박은지 인턴기자

일시 3월 25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이야기 전시장 **문의** ☎ 02-399-1153

공연명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미스사이공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3월 24일까지	1599-1980
겨울연가	명보아트홀	3월 18일까지	070-7019-6707
장화신은고양이	AK아트홀	3월 18일까지	02-861-3337
막돼먹은 영애씨	부산MBC롯데아트홀	3월 17~18일	1688-8998
아기공룡 둘리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3월 25일까지	02-322-4111
캣츠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3월 17~18일	1544-8076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3월 17~18일	1544-0412
연극			
인물실록 봉달수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3월 18일까지	02-929-8679
해프닝	클막씨어터	3월 25일까지	1661-2278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7~18일	1566-6551
행복	대구 하모니아아트홀	3월 18일까지	053-254-7241
라이어 2탄	대전서구문화원 아트홀	3월 25일까지	1644-2025
오 사랑	부산 에저또 소극장	3월 18일까지	1600-1716
콘서트			
밴드 뮤직 페스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3월 18일까지	02-440-0500
나는 가수다 콘서트	대전무역전시관	3월 17일	1588-9285
버벌진트 콘서트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	3월 24일	1644-1702
이문세 붉은 노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3월 23~24일	1544-1555
김건모 콘서트	김해 문화의전당	3월 24일	1600-1602
클래식/오페라			
코리안심포니 제179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30일	02-523-6258
소울챔버오케스트라 콘서트	LG아트센터	3월 25일	1544-1555
무용			
발레리나 춘향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23~24일	02-951-3355
2012 한팩 라이징스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3월 16~17, 23~24일	02-3668-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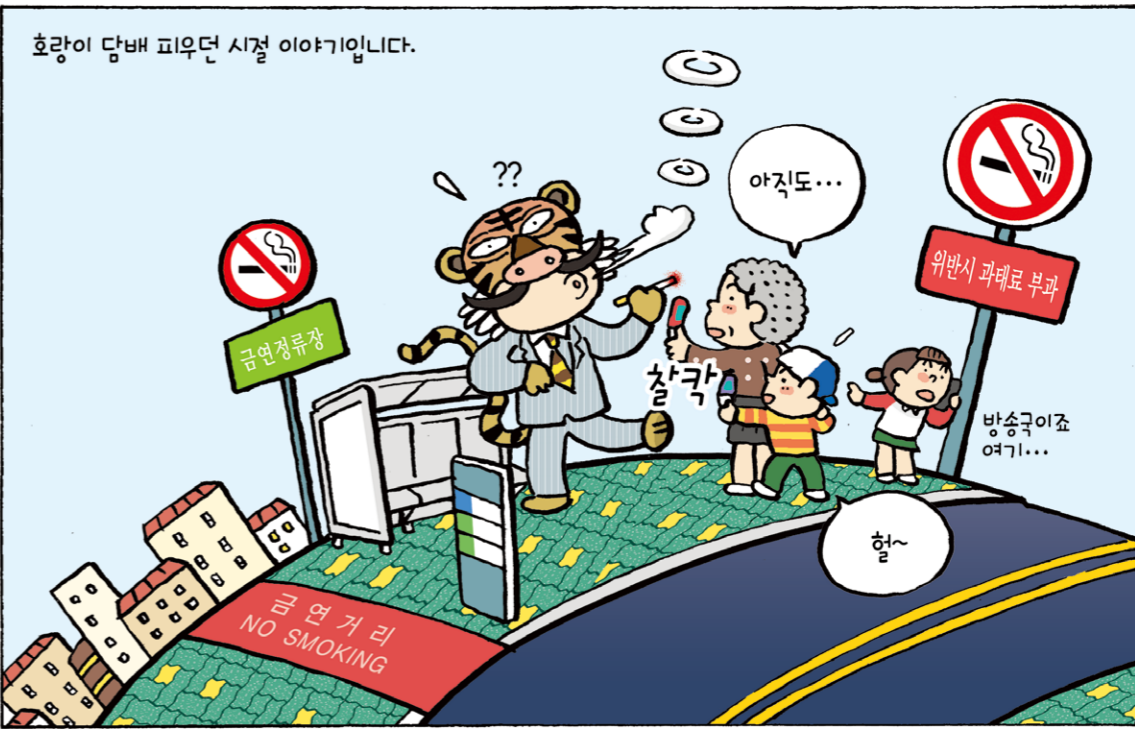
축제 **제13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제2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전통창극 공연, 콘서트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상설 행사로는 산수유 웰빙 건강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놀이마당 등 네 가지 테마존에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산수유꽃 디카 사진 콘테스트와 4인 가족이면 참여가 가능한 산수유 마을 미션캠핑 1박2일도 준비돼 있다.

일시 3월 23~25일 **장소** 전남 구례 지리산온천단지 **문의** ☎ 061-780-2727

3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2월 26일~3월 3일)

	곡명	가수
1	BLUE	빅뱅
2	BAD BOY	빅뱅
3	사랑먼지	빅뱅
4	FANTASTIC BABY	빅뱅
5	Touch	miss A
6	재미없어	빅뱅
7	Heaven	에일리
8	날개 (대성 SOLO)	빅뱅
9	Falling	존 박
10	니가 필요해(I Need You)	케이윌

호랑이 담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모두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금연해주세요.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 박용인

대관령 중턱에 있는 왕산중학교는 전교생이 18명입니다. 개교 이후 42년 동안 졸업한 학생 수는 1천3백명이 넘지만, 올해는 달랑 한 명입니다. 화전을 일구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가면서, 산골 마을엔 낡은 함석집들과 노인들만 남았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일은 산새같이 짹짹거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면서 마을의 꽃밭도 적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왁자지껄한 졸업식 날, 선생님들의 가슴마다 붉디붉은 카네이션이 피었습니다. 졸업식을 축하하러 각계각층에서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강릉 상수원인 맑은 오봉댐을 돌아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오시고, 왕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왕산면 우체국장님, 면장님, 이장님, 총동창회장님도 속속 도착하십니다.

늘, 야구모자에 장화를 신고 다니시던 이장님도 이날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교육장님과 선생님들은 얼굴이 하얗고, 이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은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까맣습니다.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으면 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지만, 모두 엄숙한 차렷 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졸업생은 단 한 명이지만 방송국 기자들도 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수여하시고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표창장과 상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하객 새싹도 한 명뿐인 졸업식 축하

국회의원, 교육장, 강원도의회 의장, 강릉시장, 그리고 면장님, 우체국장님, 총동창회장님도 격려의 메시지와 상품을 주며 졸업생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허리 구부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석하셔서 마디 굵은 손으로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길고 긴 연설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길고 긴 겨울도 끝나고 새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가다 보니 교실 밖 양지 쪽에 아주 조그만 새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보니 너른 꽃밭에 달랑 하나 올라온, 이 조그맣고 여린 새싹을 축하하러 먼 우주에서도 각계각층의 손님들이 오셨더군요.

세상의 모든 새싹은 어른들로부터 사랑과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가난과 질병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새싹은 없는지, 혹시 따돌림을 당해 그늘에 갇혀 혼자 울고 있는 새싹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촉촉이 비를 머금은 흰 구름과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도 속속 참석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새싹은 어른들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새싹과 어린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출발점이자 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린 새싹들이 두터운 흙 속에서 스스로 움트며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난과 질병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새싹은 없는지, 따돌림을 당해 그늘에 갇혀 혼자 울고 있는 새싹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주시기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2월과 3월은 졸업식과 입학식이 많은 달입니다. 아직 새싹은 어리고 바람결은 조금 차갑지만, 카메라를 든 햇빛이 셔터를 반짝거리며 분주한 오늘은 우리나라의 '입춘'입니다. G

글 · 유금옥 (시인)